EAST ASIAN LIBRARY
UNIVERSITY OF TORONTO LIBRARY
130 St. George Street
8th FLOOR
TORONTO, CANADA M5S 1A5

DAILY The Korea Times Toronto Edition

No. 1094 1983년 3월 30일(수) 1025 DUPONT ST, TORONTO, ONTARIO M6H 1Z7 (416)533-2361 Wednesday, March 30, 1983

홍중표씨 전국대의원 출마

돈·벨리·이스트지구··클락 지지

온타리오주 복합문화자문위원이며 메트로·토론토경찰 불평불만처리위원인 홍중표(Jay Hong)씨가 연방보수당 전국대의원에 출마했다.

돈·벨리·이스트지구에 출마한 홍씨는 자신의 지지세력을 확보하기 위해 이 지역 한국계 130명을 보수당 당원으로 이미 등록시켰다.

오는 4월21일 있을 이 지역 대의원선출에서 홍씨가 6명의 대의원중 1명으로 선출될 경우 6월8일~12일 오타와에서 있을 전당대회에 참석, 당수선출 투표권을 갖게된다. 만약 전당대회에서 클락이 다시 당수로 선출됨과 함께 보수당이 집권당이 될 경우 홍씨는 연방정부 요직에 진출할 가능성이 있다.

당원등록마감 2일전 돈·밸리·이스트구역에서는 그리스및 이탤리언계 약 170명이 또한 새 당원으로 등록했다.

한 소식통은 홍씨가 대의원에 선출되려면 적어도 1백여명의 당원으로부터 지지표를 얻어야 한다고 말했다.

홍씨등 에트닉·그룹의 연방보수당내 세력확장은 28일자 글로브 & 메일지도 1면 4단기사로 보도했다.

지금까지 연방 정계에서는 복합문화주의(Multiculturalism)를 내거는 자유당이 주로 에트닉의 지지를 받아왔으므로 조·클락 세력이 에트닉계의 지지를 받는다는 것은 획기적인 새로운 양상이라고 이 신문은 지적했다.

박인순씨 재판 4월25일 연기

"외국인의 미국 불법 입국주선"혐의로 연방경찰(RCMP)로 부터 입건된 전 토론토 한인회장 박인순씨등 교민 3명의 재판이 4월25일(월)로 연기됐다.

29일 아침 10시 온타리오주 지방법원 제26호 법정에서 실시된 변호사 멘델·그린씨 대리인과 함께 출두한 박씨는 부인 옥후현씨, 오리엔탈·팔레스 매니저 최성대씨와 함께 판사 퍼리씨로부터 재판날자연기를 확인받은 후 10분만에 법정을 떠났다.

◆ 홍중표씨

〈주요시세〉

금(런던 하오 fix)	$503.33
은(토론토)	$12.73
미 $캐나다 1달러	US$0.8120
캐나다 $(미화 1달러)	CAN$1.2314
원화(서울, 외환은행, 전신환 매입/매출)	618.67/621.79

고등학생46% 가 부모와 대화부족

(뉴욕지사) 뉴욕 크리스찬 아카데미(원장·김영호 목사)의 최근의 청소년 상대조사에서 교포 고등학생들이 부모와의 대화부족등으로 이중문화권속에서 갈등을 겪고 있음이 밝혀졌다.

크리스찬 아카데미는 뉴욕의 15개 고등학교 3~4학년에 재학중인 3백여명의 교포 학생에 대해 설문지 조사를 시행, 이와같은 결론을 얻은것이다.

이조사에 따르면 개인적인 문제를 부모와 상의하느냐는 설문에 않는다가 46.2%, 한달에 1~2회정도 상의가 17.8%였으며 부모가 이성들과의 교제를 알고 있는가라는 설문에는 알고있다가 3.9%뿐으로 나타나 부모와의 대화가 절대적으로 부족한 것으로 밝혀졌다.

미국생활의 만족도에 대해서는 만족이 45.5%, 불만족이 21.9%로 나타났고 대학진학은 필수인가에서 꼭 진학해야 한다가 65.7%, 필요없다가 5.3%로 대부분의 학생이 진학에 대한 열망을 표시했다.

이성교제는 26.6%가 하고있다고 답했고 이들중 키스경험은 46.8%, 섹스경험은 4.1%가 있다고 대답했다.

용돈은 1주일에 10달러미만이 44.4%, 20~50달러사이가 42%로 나타나 대부분의 학생이 50달러이내의 용돈을 1주일에 쓰는 것으로 [illegible]

가장많은 지역에서 가장많이 읽혀지고 있읍니다.
토론토 한국일보
(416)533—2361

오늘의 예금금리(3.10부터)

기간	한인신용조합 신용조합	한인신용조합 오뚜기정기예금	시중은행
30일	8.5%		7.5%
90일	9.0%		7.5%
180일	9.0%	8.75%	7.5%
365일	9.0%	8.75%	8.0%

※ $100,000이상은 특별금리로 우대함.
보험이 보장하는 한인신용조합 Tel : 533-9387~8

15개교단 380교회

남가주 …LA타임스 보도

(로스안젤스26일=연합)LA타임스는 26일 종교란을 통해 남부캘리포니아 지역내에 있는 한인교회들의 실태를 보도하면서 현재 15개교단 380여교회가 남가주의 크고 활성적인 교회단체의 하나로 빠르게 성장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 신문은 가장 적은 단위의 가정교회로부터 큰 규모에 이르는 교회들이 미국교회를 빌리거나 심지어는 수퍼마켓에서 예배보고 있다고 설명하면서 이들 교회는 한인들의 군소단체의 3분의 2를 점유하고 있으며 이들은 대부분 자녀들의 종교교육뿐만 아니라, 직장과 일반 정보를 교류하는 중요한 처소로 기여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 신문은 또 이들 한국교회들의 주류를 이루는 교단으로는 장로교회와 감리교회이며 가장 큰 교회는 신도 3,500명을 거느린 영락교회와 2,500명의 교인을 가진 동양선교교회이며 이들 2교회의 연간예산액은 100만달러가 넘는다고 보도했다.

LA타임지는 이어 기독교인 아닌 교민중의 3분의 1은 불교나 유사종교를 신봉하고 있다고 전했다.

은하 보석
란콤 화장품 대리점
ROLEX
오메가시계
45% ~ 50% OFF
교포유일한 연방정부 귀금속도매및 가공공장 면허소지업체
☎ : 534-9977 7791 620A Bloor St. W.

"가진것보다 더 즐겁다"

포니승용차를 한인사회에 기증한 조영사부부

26일 열린 「실협의 밤」 행사에서 가장 관심을 끌었던 경품권추첨의 특등상품인 포니승용차(6천불상당)에 당첨되었던 박정욱씨(토론토총영사관 조흥래 영사부인)는 28일 기자회견을 통해 당첨된 포니차를 "교민사회를 위해 기증하기로 결정했으며 한인회를 통해 절차를 밟을 것"이라고 밝혔다.

이날밤 아리랑식당에서 열린 회견에서 조영사부부는 당첨된 날밤 집으로 돌아오는 차안에서 이같은 결심을 굳혔다고 말하고 평소부터 무언가 한인사회를 위해 공헌하고 싶었다는 자신의 심경을 피력했다.

조영사는 "정부에서도 외교관을 파견할 때 주재지역에서 한국인의 얼을 심는데 앞장설 것을 원하고 있고 개인적으로 토론토 한인사회에서 너무나 배운것이 많아 미진하나마 한인사회를 위해 공헌할 수 있게 된것을 기쁘게 생각한다"고 말했다.

박씨는 "남편이 이 차는 당신 것이 아니니 아예 생각마라"는 얘기가 처음엔 섭섭했는데 다시 생각하니 정말 아빠 말이 맞았고 회사의 결정을 하니 마음이 가볍고 가진 것보다 더 즐겁다"고 밝혔다.

한인회를 통해 전달될 포니승용차 전달식은 적당한 시간에 한인회관에서 있을 예정이다.

한편 이같은 소식에 접한 장순채 한인회장은 "재외공관이나 기관원으로서 이같은 회사는 처음 있는 일이며 참으로 귀감될 일이다. 기증한 이의 뜻을 잘 반영할 책임이 크다"고 소감을 말했다.

또한 오타와의 대사관이나 총영사관에서도 조영사부부의 결심을 높이 평가하면서 공무원으로서 모범을 보인 것이라고 말했다.

◆포니승용차를 한인사회에 회사하겠다고 공식발표하는 조흥래 영사 부부.

구독신청
533-2361

"한인은 훌륭한 모범"

드리장관 인터뷰서 찬사 보내

"3년전보다 파티 참석자들의 연령이 젊어졌다"는 것이 프랭크·드레 온타리오주 사회성장관이 온타리오 실업인협회 10주년 행사참가자들을 보고 평한 말이다.

80년 11월 윌렴·데이비스주수상과 함께 실협 7주년 파티에 처음 나타나 한인사회와 인연을 맺기 시작한 드레장관(당시 소비성장관)은 작년 9월 양로원건립위원회의 모금 워커톤에도 나와 인사말을 할 정도로 한인사회와는 비교적 가까운 정치인이다.

지난 26일밤 토론토힐튼하버캐슬호텔에서 본사기자와 인터뷰를 가진 드레장관은 이날 "협회회원이 3년전 7백명에서 2천명으로 급속도로 팽창한 것이 놀랍다"고 말했다.(장관은 숫자를 잘못 인용했다.)

◆ 드레 사회부장관

"인터뷰전 축사에서 그가 한인들이 온타리오주의 발전에 끼친 공헌을 치하한 것은 단지 외교적인 코멘트가 아니냐"는 질문에 드레장관은 정색, "아니다"고 부정했다.

우선 한인들은 다른 이민에 비해 이민오기전의 좋은 경력을 포기하고 새로운 사회에 과감히 도전, 경제적 측면으로서만 아니라 훌륭한 시민, 모범가정의 본을 보여주었다고 그는 말했다.

그는 이어 한인들이 대거 이민온 10년전만 하더라도 캐나다에서는 열심히 일해서 자본을 축적, 장래를 계획하는 사회풍조가 그다지 없었으며 그런 시점에서 한인들이 근면·성실하게 노력하는 모습을 보여 게으르고 비전이 없는 [illegible]다고 말했다. 그는 또 지금까지 경쟁도, 의욕도 없었던 비중이 작은 소기업, 소매업이 한인들 덕분으로 비중이 커졌다는 점도 지적했다.

비교적 짧은 기간에 많은 자본을 축적, 한인 비지네스맨의 은행거래액의 규모는 놀랄만 하다고 말한 드레장관은 또 "이 많은 한인들이 만일 온타리오주가 아니고 B.C.주나 기타주에 정착했다고 가정해 보라. 온타리오주로서는 큰 재정적 손실이 되었을 것"이라고 말했다.

장관은 또 한인들의 2세 교육및 전통문화 보전에의 열의도 타민족의 모범이 된다고 칭찬을 아끼지 않았다.

한국일보 토론토
토론토발행인 : 김명규
편 집 인 : 김운영
인 쇄 인 : 박정서
광 고 국 장 : 송광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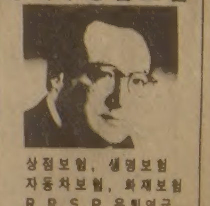
캐나다한국외환은행
KOREA EXCHANGE BANK OF CANADA
•본 점•
2 First Canadian Place #1140
364-2890
•블루어지점•
627 Bloor St, W, 533-8593

SUNLIFE 백 용 빈

생명보험, 주택보험
R R S P
사업보험, 상점보험
497-3800 284-9052

미도파 백화점
454 BLOOR ST W
B.536-1692
R.245-3539

YOUNG I. HYUN
C.A.
카나다公認會計士
현영일
444-9341

강화수종합보험

상점보험, 생명보험
자동차보험, 화재보험
R.R.S.P. 은퇴연금
622-5147

Mirage Boutique
보다 넓고 편리한 장소로
확장이전하였읍니다.
보다 좋은 제품
다양한 품목으로,
보다 정성어린 봉사로
교민여러분을 모시겠읍니다
한국인의 기호에 맞는
디자이너 드레스/
파티복/평상복 등

숙녀복전문집
미라지
4월5일(화)부터
확장이전 개업
Mirage Boutique
676 BLOOR ST. W.
(한국비데오 옆)
(416)530-1870 권수희

University of Toronto
Robarts Library, rm 8049
East Asian Library
Tor On M5S 1A5

심장병앓는 한국어린이 3명
무료 진료차 오타와에

(오타와=이태은 지국장) 심장질환을 앓는 한국 어린이 3명이 오타와의 시빅병원에서 무료치료를 받게돼 2일 대한항공기편으로 오타와에 도착한다.

어린이환자를 돕기위한 자선단체인 힐드·칠드런·오브·캐나다(Healed Children of Canada)의 주선으로 오타와에 오게된 어린이는 여연희(10)양, 신연완(3)군, 임부연(8)양등으로 이들은 완치될 때까지 모든 비용을 HCC로 부터 제공 받는다.

이들에 관한 기사는 오타와의 명자지 시티즌(The Citizen)지에도 소개되었다.

HCC는 오타와 시빅병원의 의사인 나오미·브롬스켄여사가 회장으로, 로버트·브렌다울씨가 부회장으로 있는 단체로 2년전 설립됐으며, 이번에 첫 행사로 한국어린이 3명과 태국어린이 1명을 초청해 오기로 한 것이다.

한국상품 덤핑관세

(서울29일=연합) 캐나다와 미국, 호주, 일본등 국가들은 옷, 자전거등을 비롯한 12개의 한국상품에 대해 덤핑방지관세를 부과하고 있음이 29일 한국무역진흥공사(KOTRA)의 보고서에서 밝혀졌다.

KOTRA는 캐나다의 덤핑방지규제품목에는 사진앨범, 가죽핸드백등 5개 품목이 포함돼있다고 말했다.

탁구협회 2대 회장에
차선행씨 피선

캐나다 탁구협회는 25일 저녁 한국관에서 18명의 회원이 모인 가운데 정기총회를 갖고 제2대 회장에 차선행(30세)씨를 만장일치로 선출했다.

차씨는 취임사에서 "과거부터 숙제로 남아있는 탁구회관을 설립하기 위해 많은 협조를 바라며, 앞으로 2년간 열심히 뛰어보겠다"고 밝히면서 2주내로 임원진과 이사진을 선정해서 발표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탁구협회는 과거 6년간 이영환씨(명예회장)가 이끌어 오다가 81년 탁구협회를 정식으로 발족, 초대회장으로 정영모씨(현 뉴욕거주)가 인계받은 바 있다. 차회장은 실업인 협회장인 차선경씨의 막내동생이다.

◆26일 하오 로열·콘서버토리홀에서 연주중인 김미현씨(바이올린). 이날 피아노 반주는 언니인 김옥현씨가 맡았다.

김미현·바이올린 연주회
청중들로부터 호평받아

바이올리니스트 김미현씨와 언니인 피아니스트 김옥현씨의 자매 연주회가 지난 26일 하오 4시 토론토대학 로열·콘서버토리·오브·뮤직연주회장(273 Bloor St. W.)에서 열렸다.

교민 1백여명이 참석한 이날 연주회에서 미현씨는 타르티니의 소나타 G단조 "The Devel's Trill"을 서두로 드보르작작곡 크라이슬러 편곡의 슬라브 무곡 2번 E단조, 쌩쌍의 하바네즈 83번등을 연주, 청중들로부터 호평을 받았다.

인터미션에 이은 포레(Faure)의 소나타 A장조 작품13번은 대곡에 도전한 연주자의 예술에의 자세를 엿보이게 해준 성실한 연주라는 인상을 주었다.

이번 연주회는 미현양의 모교인 로열·콘서버토리의 특별초청으로 이루어진 것이다.

현재 미국 메릴랜드주 볼티모어의 피바디·컨서버토리에 장학생으로 수학중인 미현씨는 82년 마베리 바이올린 경연대회에서 입상, 79년 캐네디언 뮤직·콤프티션의 실내악부문입상등의 경력을 자랑하는 토론토 교민 김규봉씨의 차녀이다.

이날 동생인 미현양의 바이올린을 더욱 돋보이도록 훌륭한 앙상블을 보인 피아노의 김옥현씨는 몬트리얼의 맥길대학에서 음악석사학위를 딴뒤 현재 캘가리의 마운트·로열·칼리지·콘서버토리에서 가르치고 있다.

천주교회 단체우승
동부장로교회주최 볼링대회

동부장로교회(담임목사: 홍순관)청년회가 주최한 제4회 볼링대회가 26일 Play time 볼링장에서 8개교회 12개팀에서 선수 50명이 출전한 가운데 거행되었다.

이날의 수상자와 전적은 다음과 같다.

단체전 1등 천주교회(1901점)
2등 메시아교회(1842점)
3등 동부장로교회(1812점)

남자부 A조 1등 오상균(동부장로교회)-545점
2등 장인택(동부장로교회)-532점
3등 김홍배(베델교회)-527점

B조 1등 김용환(개인출전)-516점
2등 이상수(천주교회)-502점
3등 조경남(대한교회)-444점

여자부 1등 장한샘(동부장로교회)-479점
2등 이영순(천주교회)-453점
3등 전옥이(메시아교회)-427점

혼합 1등 이종현부부(천주교회)-530점
2등 장인택부부(동부장로교회)-497점
3등 최종대부부(캐나다순복음교회)-483점

경제전망 밝은 플로리다
불경기속에서도 산업지대로 급속성장

미국 각주는 경제불황으로 고민하고 있으나 플로리다주만은 경기상승 일로에 있다.

미국의 주요 경제측정기관에 의하면 플로리다의 경기가 최근 다른 주들을 능가하고 있으며, 특히 외국 무역면에서 괄목할만한 성장률을 보여주고 있다.

몇년전만 하더라도 플로리다주를 뉴욕주 주민들은 은퇴하는 노인들만 모이는 주라 하여 "할머니주"라고 칭하여 왔으나, 이제는 그와는 사정이 달라 미국내에서 고급기술을 요하는 산업들이 가장 많이, 그리고 빠른 속도로 모이는 주가 되고 있다.

5년전만 하더라도 관광업과 건축산업이 주종이 되어 왔으며, 60년전에는 미주전역에서 개인소득이 가장 낮은 주였던 플로리다에서 새로운 산업혁명이 일고있다.

Tampa에서 Cape Canaveral로 이루는 산업공원은 전자 산업지대로 그 발전규모와 속도가 대단하며 Miami와 Cape Canaveral로 잇는 동부해안지역을 씰리콘해안지역이라 하여 콤퓨터 산업이 급속도로 발전되고 있다.

이와함께 서구라파 지역 국가들과 일본에서 수백만불의 산업자금이 속속 들어오고 있으며, 동시에 이와 관련된 고도기술진과 가족들이 전국각지에서 플로리다주로 몰려들고 있다.

전통적인 산업도시인 디트로잇이나 핏츠버그등의 대도시가 큰 타격을 면치 못하고 있는 반면 플로리다주는 번성일로에 있으며, 과거 4년동안만 해도 55억불 상당의 새 투자가 각 회사에서 이루어졌다. 향후 4년 플로리다주 경제전망은 이보다 더 빠른 추세로 발전될 것이 확실시되고 있다.

이와함께 미각주에서 많은 기술자와 노동자들이 속속 플로리다주로 이주하고 있다. 기후도 연평균 화씨 70도를 유지하며 연중 수영, 골프, 요트놀이, 테니스를 즐길 수 있어 많은 사람들의 관심거리가 되고 있으며, 장래투자지로 투자가들이 모여들고 있어 부동산 경기도 호세를 보이고 있다.

(Globe & Mail지에서)

그리스수상
캐나다 공식방문

(오타와)토론토에서 욕대학 교수등을 지내며 6년간 망명생활을 한 그리스의 안드레아·파판드레오(64)수상이, 27일 수백명의 그리스계 캐네디언의 열렬한 영접을 받으며 오타와에 도착했다.

67년 군사쿠데타가 일어나자 투옥된 파판드레오는, 2년뒤인 당시 린든·존슨 미대통령의 개입으로 석방되자 토론토에 와서 74년 모국의 군사 독재정권이 무너지기까지 욕대학에서 가르쳤었다.

80년 그리스총선에서 집권한 파판드레오를 맞아 토론토에 있는 35만명의 그리스코뮤니티는 댄포스 애비뉴를 중심으로 환영무드에 들려있다.

파판드레오는 음악가 미키스·데오도라키스, 배우 멜리나·메르쿠리여사등과 함께 그리스 해방에 큰 역할을 담당했던 현대사의 영웅으로 꼽힌다.

교황특별미사
MTV 단독방영

MTV는 금년도 부활절에 바티칸에서 거행되는 교황의 특별미사를 단독방영한다.

로마가톨릭토론토대교구의 후원으로 방송되는 부활절미사는 4월3일 오후 2시부터 4시까지 채널 47, 케이블 4로 토론토 전역에 방영된다.

金聖鍾작

치정과 恐怖의 추리소설

第5의 사나이

<201>

어머니와 아들 ⑧

"네 동생은 떠돌이무역업자인가봐"

『어머니…。』

그는 하소연하는듯 어머니를 바라보았다。

그의 어머니는 손을 내저었다。

『끝까지 들어봐。 내가 살면 얼마나 살겠느냐。 네 동생이 아버지한테 간 뒤로는 소식이 얼마간 끊겼다。 그러던차 네 아버지가 죽었단 소식이 날아들었어。 그래도 혹시나하고 기다리고 있었는데 그 소식을 들으니까 온갖 희망이 와르르 무너지는 것같더라。 슬프기 보다는 허탈해서 견딜 수가 없었지。 그러다가 정신을 차리고 네 동생을 찾아야겠다는 생각이 들었지。 하지만 소식이 끊겨 어떻게 해볼수가 없었어。 돈 한푼 없는 주제에 여자 혼자 자식을 찾겠다고 어떻게 홍콩에 가겠니。 포기하고 만사를 잊으려고 술집을 돌아다닌거다。 그렇지만 그 생활도 젊었을 때의 이야기지 나이가 들고 얼굴에 주름살이 느니까 받아주는 데가 없더라。 죽어도 고향에서 죽어야겠다고 내려와서 그때부터 어 집에서 귀신 노릇을 하고 있는거다。

『고생많으셨읍니다。』

『고생은 무슨 고생…。』

그녀는 벌컥 화를 냈다。 그리고 이야기를 계속했는데 아까보다[illegible] 소리에 힘이 없었다。

어느날 한 젊은이가 그녀를 찾아왔다。 서른 살 가까이된 젊은이였다。 놀랍게도 그는 그녀의 둘째 아들인 왕조문이였다。 그의 말인즉 열살때 아버지가 세상을 떠났는데 눈을 감으면서 하는 말이 너의 생모는 한국에 살고 있으니 나중에 찾아가보라고 했다는 것이다。 그말과 함께 그는 어린 아들에게 어머니에 관한 것이라고 하면서 봉투를 하나 전네주었다。 봉투 속에는 어머니의 사진과 함께 주소가 들어있었다。

왕조문은 그것을 고이 간직한채 언젠가는 어머니를 찾으러가겠다고 마음 먹었다。

그러나 마음대로 되지가 않았다。 강보에 싸여 어머니품을 떠난 그에게는 어머니에 대한 기억이 있을리 없었다。 그래서 어머니에 대한 그리움이 그렇게 사무치지 않았는지도 모른다。 그러저러하는 사이, 너무 오랜 세월이 흘렀고, 그제서야 그는 뒤늦게 어머니를 찾아왔던 것이다。

朴 男 그림

『그 애가 들으면 기분나쁘겠지만…둘째한테는 별로 정이 안간다。 핏덩이때 떨어졌다가 30년이 지나서야 만나서 그런지 처음에는 내 자식이란 생각이 들지않았다。 너한테만은 다르지。 너는 내가 버린거나 마찬가지였으니까。』

『동생은 무슨 일을 하고 있읍니까?』

『몰라。 이런저런 일을 한다는데 돈을 꽤 버는 모양이더라。 그애는 소식이 없다가도 불쑥 나타나곤 하지。 그런데 요새는 통 소식이 없어。 이 에미를 잊었는지 소식이 없어。 그애도 너를 만나보고 싶어하는데…。』

『다음에 올 때는 주소를 알아두십시요。』

『일정한 주소가 없대。 자기 말로는 무역인가 뭔가를 한다더만…그래서 여기저기 돌아다닌다고 하는데…。 하여간 여기다 논밭을 많이 사놓고 산까지 사놓은걸 보면 돈을 꽤 잘버는 모양이야。 난 농사지을 힘이 없어서 논밭을 모두 남에게 빌려줬다만…내 생각 같아서는 네가 여기서 장가들어 살면서 직접 농사를 짓는게 좋을 것 같다。 궂은 일을 하면서 돌아다니게 아니라 여기서 사람 부려가면서 농사나 지으면 그게 훨씬 고생덜하고 속편한 일이지。 네 동생도 좋아라고 할거다。』

비지니스 소식란

J.C.골프사
사세확장

캘리포니아에 소재한 보웃(Beauwood) 골퍼크럽제조회사의 캐나다 총대리점인 제이씨골프기업(J.C. Golf Enterprise Ltd.)사장인 교민 정정홍(John Cheung)씨는, 사세 확장에 따라 최근 판매망을 크게 넓혔다.

81년 2월 업체 등록한 J.C. Golf 회사는 현재 오타와, 몬트리얼에 각기 3명의 판매원을, 몬톤지역에 2명, 온타리오(토론토)지역에는 5명을 두고 있다.

캐나다외에 한국과 남아프리카에도 총대리점을 운영하고 있는 정씨는, 지난해 2월 미시사가(2779 Thamesgate Drive Mississagaua)로 사무실을 옮겨 영업중이다.

한맘골프크럽
부회장에 김용기씨

토론토 한맘골프클럽(회장 홍진표)은 27일(일) 하오3시 쎄인트·폴성당 지하강당에서 정기총회를 열고, 공석중인 부회장에 김용기씨를 선출하고, 올해 연례행사인 2대 골프대회 일정을 확정지었다.

48명 회원중 이날 참석자는 30명이었다.

이날 회의에서는 제7회 한맘오픈골프대회를 6월11일 정오 글랜·이글 골프장서, 제8회 회원 골프대회를 8월27일 오후2시 리치몬드·힐 골프장에서 거행하기로 결의했다.

교민동정

◆김상표(전 삼성사장)=전파사「삼성사」를 문닫고, 사업관계로 해밀턴으로 이주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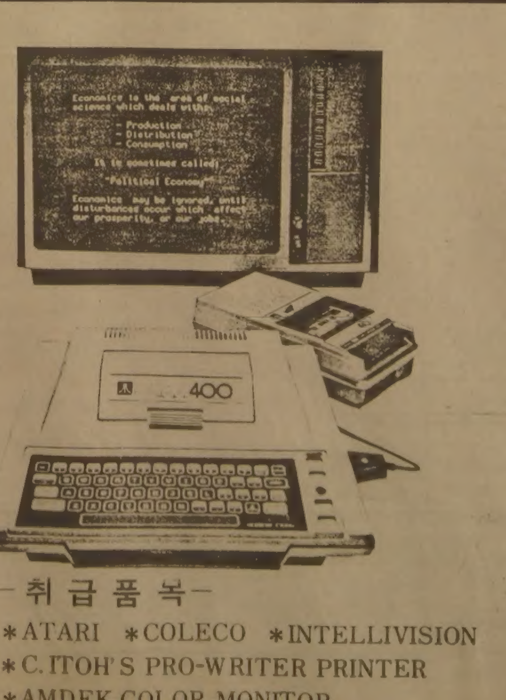
◆서만수(전 「한인회보」편집장)=며칠전 첫 아기로 "살림밑천"인 딸을 낳아 싱글벙글.

◆바로 잡음◆

지난 24일자 1면「인구의 2/3가 종교인」기사중 종파수에 있어 "가톨릭 14파"는 한국에 있는 가톨릭 교구 수가 모두 14 개 임을 나타내고, "가톨릭의 종파는 오직 하나"임을 바로 잡습니다.

연상만 건축설계 사무실
SANG-MAN YOUN ARCHITECT
161 EGLINTON AVE. E. SUITE 702
484-4895·484-6110(B). 492-7472(R)

◆억세게 재수좋은 부부…패배주 롱게이에 거주하는 랑드리부부는 하루밤새 거의 389만 달러를 벌어드린 행운의 부부이다. 27일밤 추첨된 복권 로토 6/49의 번호 6개를 다 들어 맞힌 장본인은 부인 자클리여사.



홈 컴퓨타

신장개업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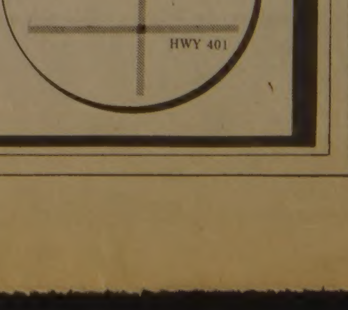
금번 저희가 자녀교육에 도움을 줄 수 있는 홈 컴퓨타및 각종 부품, 컴퓨타 교육자료를 구비하고 여러분을 모시고자 하옵니다.

개업일 1983년 4월 2일

ㅁ이제 자녀교육을 위하여 홈 컴퓨타를 구입할 시기가 되었읍니다.
ㅁ홈 컴퓨타 구입에 관한 상담을 성심껏 해드리겠읍니다.
ㅁ저렴한 가격으로 모시고자 하옵니다.

-취급품목-
*ATARI *COLECO *INTELLIVISION
*C.ITOH'S PRO-WRITER PRINTER
*AMDEK COLOR MONITOR
*각종 교육자료및 GAME

Sheridan Mall



COMPUPLACE INC. ☎: 243-0411
1700 WILSON AVE. (SHERIDAN MALL) 김성구, 홍성호

종교계소식

부활절 새벽연합예배

3일 새벽6시…써니부룩·파크

금주와 다음주는 세계기독교인과 유태인들에게 있어서 매우 중요하고 의미있는 종교적 절기인 부활절과 유월절이 겹쳐 있다.

이 두절기는 기독교신앙뿐만 아니라 유태인에게 민족적인 상징이기도 하다.

4월3일인 부활절은 예수그리스도가 다시 살아난 날로서 전 세계기독교인의 축제일이며, 유월절은 유태인들이 3,300여년전 에집트로 부터의 역사적인 탈출(Exodus)을 기념하는 축제로서 28일밤부터 8일간의 명절을 지키게 된다.

부활절은 Lent(부활절이전 40일간의 기간)를 거쳐 예수그리스도의 공생애 최후인 고난주간(3,28-4,1)을 지킴으로서 절정을 이룬다.

세계의 기독교인들은 이 한주간동안 특별히 경건히 지내며 그리스도의 고난에 동참함으로서 십자가상에 달린 예수를 생각하고, 참회와 자기부정의 시간을 가진다.

각급교회에서는 수난주간 명상과 성만찬등의 의식을 통해 다가올 환희의 승리와 소망과 구원의 확신을 재확인한다.

한편 유월절기동안 유태인들은 무교병을 먹고, 쓴나물을 먹으며, 조상들이 에집트에서 고생을 당하고 해방을 맞은 고통과 기쁨을 함께 연상하며 지낸다.

금년도 부활절 새벽연합예배가 한인교역자회의주최와 한인장로교회후원으로 4월3일 새벽6시 써니부룩·파크(Sunnybrook Park, Leslie×Eglington 소재)에서 열린다.

이날 설교는 본문 행2:23-28에 의한 "의인의 부활"이라는 제목으로 김용출목사(제일장로교회)가 담당한다.

그외의 담당은 사회: 박희민목사(한인장로교회)

기도: 반병섭목사(한인교회)

헌금기도: 구연원장로(새한교회)

광고: 이필주목사(순복음토론토교회)

축도: 안병한목사(갈보리장로교회)이다.

교육관 신축중
제일장로교회

제일장로교회(담임목사: 김용출)는 지난 3월1일부터 약3개월의 공사예정으로 2층짜리교육관을 신축하고 있다.

5월말 완공예정인 이 공사는 11만달러의 예산이 소요되며 2층 건물에는 아동교육교실 5개가 포함된다.

한편 동교회 학생회는 28일부터 30일까지 봄방학을 맞아 수난절특별수양회를 가졌다.

생명의 말씀 TV방영 2돌
4월5일…한인장로교회

한인장로교회(담임목사: 박희민)는 오는 4월5일 TV선교방송 "생명의 말씀"방영 2돌을 맞는다.

지난 81년부터 매주 일요일 아침 30분간씩 방영된 이 방송은 그간 매스콤선교의 새로운 가능성을 창조해냈다.

설교, 음악, 간증, 좌담의 형식으로 제작되는 이 프로그램은 TV전문가가 아닌 교회직원들의 자원봉사로 이루어지고 있다.

만2년동안 약$10만을 투자한 본 방송은 금년부터 Camera 3시스템을 도입하여 본격적인 매스콤선교방송(소규모 방송국 전문시스템)을 시도하고 있으며, 또한 개방정책으로 2월부터는 월1회 제일장로교회에 고정시간을 할당하고 있다.

동 방송시간은 매주일요일 오전 8:30-9:00 City TV(채널 79, 케이블 7), 매주 수요일 재방송은 오전 10:30-11:00 MTV(채널 47, 케이블 4)로 방영된다.

김요석목사 취임
한인선교교회

한인선교교회는 27일 오후3시30분 김요석 목사를 새로 맞는 취임예배를 가졌다.

취임한 김목사는 서독의 유수한 신학대학인 튜빙겐대학에서 수학한 후 귀국하여 다년간 벽지교회를 개척목회하고 금번 동교회의 목회자로 부임했다.

복음집회
강사 김선운목사

세계복음운동토론토지회는 오는 4월21일부터 24일까지 오후 7:30 베델교회(395 Old Yonge St.)에서 김선운목사를 강사로 복음집회를 갖는다.

김목사는 현재 세계복음운동의 이사장직을 맡고 있으며 미 필라델피아 북부한인교회를 담임하고 있다.

그는 서울대 종교철학과를 졸업하고 웨스트민스터대학을 수료, Temple대학에서 철학박사를 취득하고 교수로 역임했다.

자세한 문의는 270-3092, 626-5382로 하면 된다.

한국선교기념 성회
한경직목사 초빙

한국선교 100주년기념사업준비위원회에 따르면 오는 4월29일부터 5월1일까지 3일간 "한국선교 토론토지구 100주년기념준비성회"를 갖는다.

토론토교역자회 후원으로 매일밤 7시30분 한인장로교회(1183 Davenport Rd.)에서 열리는 이 집회의 강사는 영락교회의 원로목사인 한경직목사이다.

자세한 일정은 추후 공지될 예정이다.

수난 음악예배
동부장로교회

동부장로교회(담임목사: 홍순관)는 이번주 수난주간을 맞아 성금요일(4월1일) 오후 7시 동교회에서 수난음악예배와 유회자박사의 "수난곡" 올간연주회를 가지며, 예배후에는 청년회주최의 바하작곡 "마태수난곡" 발췌감상 및 명상의 밤을 갖는다.

또한 이날 오전 9시30분부터 오후7시까지 동교회 중고등학생을 위한 성금요일 1일 수양회를 갖는다.

참가비는 무료.

이날의 순서는 영화상영, Recreation, Group Sharing and Party등이다.

관심있는 사람은 전화 530-1142로 연락요망.

「오순절 기념성회」
토론토 영락교회

토론토 영락교회(담임목사: 김재광)는 오는 5월12일부터 15일까지 "성령강림절 기념성회"를 개최한다.

이번 성회의 강사로는 LA 영락교회 김계용 목사이다.

한편 봄방학을 맞은 동교회 중고등부는 25일부터 2박3일간 와사가 비치 부근의 Alton Lodge Camp에서 수양회를 가졌다.

순복음뉴스 발행
카나다 순복음교회

캐나다순복음교회(담임목사: 조이식)는 주간 순복음뉴스를 발행하고 있다.

매주일 순복음메세지와 신앙을 체험한 산 간증과 뉴스로 꾸며지는 순복음뉴스지는 현재 각 식품점이나 음식점, 종교서관등에서 무료로 배부되고 있다.

각 가정에서 정기적으로 구독하기 원하면 본교회에 연락하면 된다. 1년 구독료는 우송료를 위한 $25이다.

부활의 참된의미

김택규 목사 (중앙한인연합교회 담임)

김택규 목사

부활절은 성탄절과 함께 예수그리스도를 믿는 기독교인뿐만 아니라 세계만민에게 의미깊은 날이다.

이날 예수그리스도는 무덤문을 깨치고 죽은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다.

그는 금요일에 십자가에 못박히고 장사되었다가 사흘 후인 주일 새벽에 부활하셨다.

이 부활사건은 기적중의 기적인 동시에 역사상에 신기원을 이룬 위대한 사건이다.

예수그리스도가 부활한 직후부터 지금까지 많은 사람들이 예수의 부활을 부인하고 있다.

제일 먼저 예수그리스도 부활의 사실을 부인하고 은폐한 사람들은 그 당시의 집권층과 종교지도자들이었다.

그들은 예수의 무덤에서 밤새워 보초섰던 병사들의 증언에도 불구하고 "예수의 제자들이 예수시체를 훔쳐가고 부활의 헛소문을 퍼뜨렸다"고 주장했다.

어떤이들은 "예수가 정말 십자가에서 죽지않고 다만 기절했다가 무덤에서 소생한 것이라"는「가사설」을 말했다.

또 어떤 사람들은 "제자들과 여인들이 예수를 너무나 간절히 사모한 나머지 그의 환상을 보고 부활한 것이라고 믿게되었다"고 말했다.

그러나 그 당시의 증언자들이 기록한 성경을 보면 예수그리스도가 분명히 죽었다가 3일만에 부활한 것이 틀림없음을 증언하고 있다.

「예수 그리스도가 부활하셨다 (He has risen from the dead)」는 이 선언은 초대교회 선교 메시지의 중심이며 기독교 신앙의 기초이다.

이같이 증언된 예수의 부활이 오늘 우리에게 어떤 의미가 있을까

첫째, 예수그리스도의 부활은 흑암의 권세에 대한 의와 진리의 최후승리를 의미한다.

예수그리스도가 십자가에 못박혀 죽게된 경위를 보면 그당시 제사장과 바리새인의 음모, 가롯유다의 배반, 총독 빌라도의 무책임하고 불공정한 재판등의 복합적 요인에서 비롯된다.

이 세가지의 요인은 불의와 허위와 비진리를 의미한다.

이 요인이 정치적 세력과 결탁하여 진리의 대표인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은 것이다.

따라서 의와 선은 무덤에 깊이 장사되고, 불의와 악이 대로를 활보하게 되었다.

성경은 예수가 십자가에 달릴때 태양이 빛을 잃고 온 세계가 암흑천지가 되었다고 기록하고 있다.

그러나 이 암흑은 길지않았고, 부활의 아침은 오고야 말았다.

태양이 힘차게 솟아 오르는 여명과 함께 무덤문이 열리고 의와 진리인 예수그리스도가 모든 불의와 허위, 비진리의 흑암을 깨뜨리고 사망 가운데서 부활의 승리를 하였던 것이다.

부활절은 온 인류에게 의와 진리의 최후승리를 구체적으로 선언하는 날이다.

둘째로, 예수의 부활은 장차 우리 모두가 부활하게 될 것을 가르쳐 주고 있다.

사도바울은 "그리스도께서 죽은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사 모든 죽은자들의 부활의 첫 열매가 되었다(고전 15:20)"고 말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의 삶이 고달프고 어둠이 엄습하여도 장차 얻을 영광의 축복을 믿어 견디는 신앙을 가지고 살아가기를 바라는 마음 간절하다.

세째로, 예수의 부활은 우리가 현재 여기에서(Here and now) 부활의 생을 살아야 한다는 것을 가르쳐 준다.

성경에는 예수의 부활사전외에 또하나의 부활기사가 있는데「베다니 나사로의 부활사전」이다. 나사로가 죽었다는 소식을 듣고 온 예수그리스도는 붙들고 우는 나사로의 누이 마르다를 위로하고 "네 오라비가 살리라"고 선언했다. 이때 마르다는 "마지막날 모든 사람들이 부활할 때에 우리 오빠도 다시 살줄을 믿나이다"고 말했는데 이 말을 들은 예수은 "내가 곧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살아서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라"하면서 현재의 믿음을 강조했다.

이 선언이 나사로에 닿았을때(touch) 나사로는 죽음의 상태에서 머물지 않고 부활하고 생명을 얻게 되었다. 오늘도 이 진리를 믿고 받아들인 사람은 누구든지 살고 영생할 수 있다.

부활과 생명은 언제나 지금 여기에서의 선택에서 시작된다.

신학자 C. H. Dodd는 "기독교인은 지금 여기에서 영생을 얻어서 무덤저편에 가지고 가며 부활할 것을 믿는다"고 말했다.

끝으로 부활절은 봄의 상징이 된다.(영어 Easter는 "봄의 여신"이란 말에서 유래함) 얼었던 눈이 녹고 엄동설한에 죽었던 것처럼 보이던 가지에서 푸른 잎이 돋아나고 활짝 꽃피는 것처럼 부활은 소생의 상징이다.

이같은 부활의 기적이 봄과 함께 나의 존재내에서 이루어지고, 내 이웃속에서 이루어져 생명이 충만하기를 바란다.

부활하신 예수그리스도는 지금도 우리와 함께 계신다.

부활이요 생명이신 그리스도를 믿고 삶으로 장차 부활하는 소망가운데 사는 '생활, 나날이 새롭게 되는 생활, 승리하는 생활이 되기를 바란다.

구독신청 533-2361

요한화랑·기독교회관
각종 종교서적·성가집·액자및 성화
549 BLOOR ST. W. ☎532-7909

교회안내

종교서관
기독교및 일반서적·액자및 성화
714 BLOOR ST. W. ☎535-1920

교회명	담임목사	예배시간	주소	전화
●감리교회 (Methodist Church)				
웨슬레감리	여용순	주일오전 11:00 금요저녁 8:00	2385 Warden Ave. Scarboro, M1W 2L8	444-8343
토론토한인감리	박춘하	주일영어 1:00 주일예배 2:00	75 Canterbury Place Willowdale M2N 2N1	498-7960
●독립교회 (Independent Church)				
가나안	이정준	주일오후 1:30	1428 Royal York Rd. Weston (at Eglinton Ave. W.) M9P 3A8	742-7010
대한	조남유	주일오후 2:00	3819 Bloor St. W. Islington M9B 1K7	621-6340
메시아한인	조창환	주일오후 1:30 영어예배 12:30 새벽기도 6:00 토·수요예배 오후8시	1580 McCowan Rd. Scarboro, M1P 3J1	298-1876
벧엘	최상봉	주일오후 1:00 수요저녁 6:30	395 Old Yonge St. M2P 1R6	496-2967
성령	김판선	주일오후 2:00 금요저녁 8:00	379 Kenneth Av. Willowdale M2N 4V9	275-4650
스카보로	김희섭	주일오후 1:30	115 Ionview Rd. Scarboro, M1K 3A1	752-3582
토론토교회	안상엽	예배시간 주일오후 1:00	2 Robert Rd. Agincourt M1T 1C1	494-5007 226-9794
◦내가 너희에게 명한 모든 것을 지키도록 가르쳐라. 내가 세상 끝날까지 항상 너희와 함께 있겠다." 마태 28:20				
●순복음교회 (Full Gospel Church)				
순복음카나다	조이식	주일오후 2:00 금요오후 8:00	1030 Albion Rd. Rexdale M9V 1A7	745-3884 743-4813
순복음토론토	이필주	주일오후 20:00 금요기도 8:00	1 King St. Weston Weston M9N 1K8	881-7162 247-9577
순복음몬트리얼	이은종	주일오후 2:00 수요오후 8:00	5275 Earnes Cliffe Ave. Montreal H3G 2H8	(514)933-0308 486-6600
●성결교회 (Holy Church)				
베다니성결	김요한	주일오후 1:00 성경공부 주일오후 3:00	2799 Weston Rd. Weston M9M 2R8	248-9709 248-1653
●연합교회 (United Church)				
미시사가연합	유환진	주일대예배 오후 2시	2500 Mimosa Row Mississ. L5B 1P7	276-5163 277-2394
중앙한인연합	김택규	주일오후 12:30 수요일저녁 7:30	353 Sherbourne St. Toronto M5A 2S3	922-3863 (복음다이알) 922-0605
임마누엘		주일오후 2:00	63 Dunblaine Toronto M5M 2S2	488-4141
토론토한인연합	이상철	주일오후 성경공부 1:00 예배 2:00	300 Bloor St. W. Toronto M5S 1W3	925-6261
한인연합	반병섭	주일예배 오후 2:00	69 William St. Weston M9N 2G6	243-9543 743-8082(R)
해밀톤연합	김낙중	성경공부 2:30 예배 3:00 주일학교3:00	1570 Main W. Hamilton L8S 1E8	626-4329
세 살 버릇 여든까지 간다. 마땅히 따를 길을 어려서 가르쳐라. 잠언 22:6				
●장로교회 (Presbyterian Church)				
갈보리장로	안병한	주일오전7:30, 오후2시, 5:00 금요성경 8:00	3817 Lawrence Ave. E. Scarboro, M1G 1R2	755-7979
동부장로	홍순관	주일오전 11:30 영어 10:30	40 Yarmouth Rd. Toronto M6G 1W8	530-1142
딕시장로	차주성	매일 새벽기도회 새벽 5:30 주일낮 12:00 주일오후 2:00	3065 Cawthra Rd. Mississ. L5A 2X4	279-4356 279-6388
반석		주일오후 1:30 성경공부 2:40 토요기도 7:00	2840 Weston Rd. Weston M9M 2S3	746-5010
빌라델비아	김경진	주일오후 1:30 수요오후 7:00	7 Gretna Ave. Toronto M4A 2H5	281-5706
새한장로	김상호	주일오후 2:00 토요새벽기도 7:00 수요저녁 7:30 성경공부	105 Wilson Ave. Toronto M5M 2Z9	482-4577
선교	김요석	주일오후 1:00	1 Greenland Rd. Don Mills M3C 1N1	444-8002

교회명	담임목사	예배시간	주소	전화
성도	김용진	주일오후 1:30	87 Elmhurst Dr. Rexdale M9W 2J8	745-7370
성산	계화삼	주일예배 11:00, 12:30 수요오후 7:30 토요오후 7:30	1239 Jane St. Downsview M3L 1E7	248-4130 233-2266
토론토소망	서인구 김옥희	주일오후 2:00 수요 밤 7:30 금요철야 밤 12:00	35 Kecala Rd. M1P 1K7 (Lawrence & Kennedy) Scar.	752-9727 752-9860
시민	조성관	주일오후 2:00, 4:30 금요기도 밤 9:00 새벽기도 5:30	662 Pape Ave. Toronto M4K 3S5	266-4918
영락	김재광	주일오후 1:30 수요저녁 7:30 금요저녁 10:30	126 O'Connor Dr. Toronto M4J 2S4	423-9880 복음다이알 423-8400
오순절장로	장세택	주일오전 11:00 금요오후 8:00 주일오후 4:00	754 Indian Rd. Toronto M6P 2E3	762-1495
은성장로	장은덕	주일오후 2:00	8 Amroth Ave. M4C 4H2 (at Danforth & Woodbine) Tor.	691-9691 266-8820(R)
제일장로	김용출	주일오전 11:30-대예배 금요 오후 8:00 TV예배 오전8:30-9:00 CH79(매월 4째주일)	68 Collinson Blvd Downsview, M3H 3C3	(생명의 전화) 755-9766 636-1724
충현	박경남	주일오후 1:00-1부 2:00-2부 수요집회 밤 8:00	240 Manor Rd. Toronto M4S 1S1	438-0695 446-1211(R)
토론토한인장로	박희민	주일오전 11:00 수요오후 7:30 TV예배 8:30~9:00 AM CH79	1183 Davenport Rd Toronto M6H 2G7	535-6864 532-2121
한인중앙장로	정관일	주일오후 1:00 성경공부 2:20 금요오후 9:00	502 Bathurst St. Toronto M5S 2P9	245-4980 (전화설교)
런던제일장로		주일오전 11:30 주일오후 1:30 금요기도 오후 8:00	135 Briscoe St. E. London N6C 1X4	(519)439-6331
런던한인장로	신용규	주일오전 11:00 주일오후 1:00 금요기도 오후 1:00	530 Topping Lane London N6J 3M7	686-0224 473-5257
매니토바한인장로	이영선	주일오후 1:30 금요성경공부 8:00 토요청년성경공부 7:00 주일학교 오후 12:30	240 Home St. Winnipeg, Man. R3G 1X3	(204) 783-5881 (204) 667-7150
에드몬톤장로	서출선	주일오후 1:30, 5:00 수요오후 7:30, 토요오후 8:30	11112-109 Ave. Edmonton Alberta, T5H 1E1	(403)423-5325 463-2075
키치너·워터루한인	정동서	주일오후 1:30 금요오후 7:00	388 Ottawa St. S. Kitchener N2M 3P4	(519)579-0954
온 땅이여 여호와께 즐거이 부를찌어다. 기쁨으로 여호와를 섬기며 노래하면서 그 앞에 나아갈찌어다 〈시편 100 : 1~2〉				
●침례교회 (Baptist Church)				
에덴침례	정태진	주일오후 2:00 금요오후 8:00 성경공부	1272 Weston Rd. Toronto M6M 4R1	242-4964 665-2866
한인침례	홍신용	주일오후 2:00 금요저녁 8:00	720 Ossington Av. Toronto M6G 3T6	531-7604
●펜티코스탈교회 (Pentecostal Assemblies)				
새예루살렘	김승환	주일오후 2:00 수요새벽 5:30 중고등영어 오후 1:00 금요저녁 7:30	5 Grenoble Dr. Don Mills M3C 1C3	429-1430 429-2685
한인연합펜티코스탈	안하현	주일오후 1:00 - 영어예배 주일오후 2:00 - 대예배	300 Queen's Dr. Toronto M6L 1M5	223-1914
●천주교회				
토론토한인천주	최규식	주일오후 1:00 토요오후 5:50	439 Dundas St. E. Toronto M5A 2B1	863-0415
●기타				
제7일안식일	박형종	금요오후 7:30 토요오전 9:30 11:00	255 Finch Ave. W. Willowdale M2R 1M8	630-4284
●기도원				
오순절기도원				
토론토기도원				
협신기도원	이광옥		75 Emmett Ave. #1005. Toronto M6M 5A7	245-1687
대한수도원	조권사	철야기도 금 밤 11:00 평일기도 오후 2:00 토요집회 오후 2:00 또는 수시	100 Lawlor Ave. Toronto M4E 3L7	698-5363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치 못할 일이 없느니라』(마가복음 9:23) 『네 믿은대로 될찌어다』(마태복음 8:13)				

THE KOREA TIMES is a Canadian daily in Korean language serving the Korean Canadians.
Established 1974. Lawrence Kim publisher, Woon Y. Kim editor, Kwang Song ad. manager.
Subscription $110/yr. $10/mo.(구독료 선금. 연 $110. 월 $10.) ISSN 0712-1733, 2nd Class Mail 5248

실협파티 연설문 요지

26일밤 토론토힐튼 하버캐슬호텔에서 열린 온타리오 한인실업인협회 10주년 기념식에서 차선겸회장을 비롯한 내외귀빈은 약 40분간에 걸쳐 연설했다. 그들의 연설요지는 다음과 같다.

◆차선겸 실협회장

◆차선겸 회장◆

10년전 극소수가 모여서 설립한 실협이 온타리오 식품업계에서는 이미 위력을 십분 발휘하는 대조직체로 성장했다. 이를 바탕으로 협회가 추진중인 「협동조합의 설립」과 「빌링·시스템 일원화」등 주요과업을 실현하기 위해 분투노력하자.

◆이규현 대사

◆이규현 대사◆

지난 10년간 캐나다의 한인사회에는 엄청난 변화가 있었다. 오늘의 이 성대한 향연이 곧 대한민국의 국력신장을 상징하는 것이다.

이민역사가 매우 짧은 우리 동포들이 풍토와 언어와 역사적 배경과 문화가 판이한 이곳에서 온갖 어려움을 극복하고 다른 어떤 민족에 못지않게 뿌리를 내리고 2세들을 훌륭하게 키워가고 있다. 교민들은 "모국을 위하여 무엇을 할 수 있을까"라는 문제에 생각을 돌려주기를 바란다.

지난해 한·카 양국간의 교역량은 10억달러 규모로 캐나다에서 볼 때 한국은 14위 수출국에 12위 수입국이었으며, 한국측에서 볼 때 캐나다는 9위의 수출국에 역시 9위의 수입국이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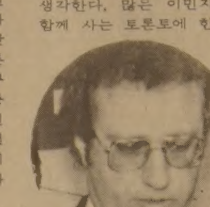
◆이글튼 토론토시장◆

토론토시장으로서, 메트로시의회의 멤버로서 또한 토론토시민으로서 창설 10주년을 맞는 실협에 축하를 보낸다. 실협회원수가 10년동안에 1천여명이 넘는 단체로 성장한데 대해 이 자리를 빌어 한국콤뮤니티에 경의를 표한다.

또한 오늘을 볼 때 30년전에 캐나다군대가 한국에 참전한 것을 영광스럽게 생각한다. 많은 이민자가 함께 사는 토론토에 한국인이 함께 참여하게 된것이 자랑스럽다.

한국인은 문화와 교육을 중요시하며 특히 모범적 가정생활을 하면서 토론토 발전에 크게 기여하고 있다.

(이글튼시장은 연설 첫머리에 서툰 한국어로 "안녕하십니까?"라고 인사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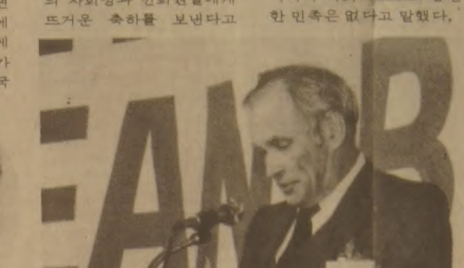

◆이글튼 토론토시장

◆프랭크·드레 온타리오주 사회부장관◆

(마지막으로 단상에 오른 드레장관은 데이비스 온타리오주 수상이 보낸 메시지를 낭독한 뒤 자신의 인삿말을 했다. 데이비스수상은 메시지에서 국외로 떠나기 때문에 부득이 참석할 수 없게 되었다고 밝히고 10주년을 맞는 실협의 차회장과 전회원들에게 뜨거운 축하를 보낸다고 말했다. 데이비스수상은 이어 실협회원들이 특히 콘비니언스·스토어 타입의 소매점을 운영하면서 창의력과 좋은 기업정신을 보여주었으며 이는 온타리오주의 경제활성화에 크게 기여했기 때문에 감사를 표한다고 밝혔다.

"지난 10년간 실협이 보여준 리더쉽과 봉사를 환영하며 이는 실협회원뿐만 아니라 여러분들이 자랑스럽게 생각하고 있는 온타리오주 자체에도 중요한 업적이 되고있다"고 수상은 덧붙였다.)

드레장관은 자신의 연설을 통해 50년 혹은 100년의 이민역사를 가진 에트닉그룹이 많지만 10여년이라는 짧은 역사속에 한인콤뮤니티만큼 경제적 측면 뿐만 아니라 사회적으로도 공헌한 민족은 없다고 말했다.


◆프랭크·드레장관

한인이 흑인 차별한다

【뉴욕지사】 교포가 운영하는 볼티모어시의 그라운드 트랜스포테이션 프로페셔널 이라는 택시회사가 이 회사의 백인 및 흑인 운전사를 차별하고 교포운전사를 우대하고 있다고 흑인 인권 옹호 단체가 시정을 촉구하고 나섰다.

NAACP(전국 유색인종증진협회)의 앤 아루벨 카운티 지구의 진 크릭 지구장은 교포 이항순씨가 사장인 이 택시 회사가 한인 운전사에게 배차의 특혜를 주고 있을뿐 아니라 볼티모어시의 교포 운전사들이 흑인 승객을 승차시키기를 거부하고 흑인 지역으로 가기를 기피하는 등 노골적으로 흑인을 차별대우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볼티모어의 한 TV와 이곳에서 발행되는 일간지 「볼티모어 뉴스 아메리칸」도 이같은 사실을 대대적으로 보도했다.

이씨가 2년전 사장으로 취임한 이 택시회사는 개인택시 66대를갖고 있는데 이중 한국인 운전사가 15명, 백인 12명, 흑인 4명이며 나머지는 러시아계 운전사들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중 러시아계 운전사들은 회사 정책에 불만을 나타내지 않고 있으나 흑인과 백인 운전사들은 사장 이씨가 친척에게 배차를 맡겨 한국인을 우대하고 있다고 불평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 택시회사는 볼티모어시에 있는 볼티모어 워싱턴 국제공항에 공항 택시를 들여보내고 있다.

이 택시회사의 한인 택시업자들은 흑인 인권단체가 이 회사뿐 아니라 볼티모어의 전체 한인 택시업자를 표적으로 하고 나서자 22일 워싱턴에서 긴급 대책회의를 갖고 우선 신문에 해명광고부터 게재하기로 했다고 한 교포업자가 말했다.

이 교포 택시 업자는 이 회사의 백인·흑인 운전사들이 사장 이씨에게 불만을 터뜨리려고 문제를 제기하다보니 전체 한인 업자들에게까지 화살이 돌아오게 되었다고 말하기도 했다.

메릴랜드주 교통국의 데이빗 와츠씨는 22일 현재 NAACP로부터 서면으로 항의서를 접수하지 않았다고 밝혔다.

볼티모어 공항의 캐를 하인솔 대변인은 분규를 일으키고 있는 택시회사측에 충분한 해명을 요구했다고 말했다.

이 택시회사의 배차담당자 마기 네이호프씨는 이 회사에 4년간 일하면서 인종을 이유로 운전사가 승차를 거부했다는 말을 들어본 적이 없다고 밝혔다.

그는 이어 한인 배차계가 교포 택시운전사에게는 한국어를 사용하고 흑인·백인 운전사에게 영어를 써서 이같은 오해가 생긴 것 같다고 말했다.

"한국 外債상환 지연된적 없다"

뉴욕駐在 박종석 商務官

뉴욕주재 박종석상무관은 24일자 뉴욕타임스 「편집자에게 보내는 독자투고란」에서 타임스가 2일 게재한 「미국의 IMF자금」이란 기사중 한국관련부분이 사실과 다르다고 밝혔다.

파멜라 S. 포크가 쓴 2일자 기사는 개발도상국가들의 IMF부채상환이 작년에 제대로 이루어지지 못했으며 이들 국가에는 한국도 포함되어 있다고 기술했었다.

"자물쇠 장치가 安全좌우"

아파트 살림보호대책…전문가는 말한다

〈뉴욕지사〉 아파트의 안전은 자물쇠장치에 의해 좌우된다고 할 수 있다.

이사를 잤을 때 수퍼한테서 전해받은 열쇠만으로는 방안살림이 불안한 실정이다.

가게는 가게대로 경보장치를 해야 마음을 놓을 수 있다.

뉴욕에서 「열쇠·경보」장치업을 하는 교포업자에게 아파트자물쇠 장치와 가게에서의 경보장치는 어떻게 설치해야 하는지, 그 실태를 알아보았다.

먼저 자물쇠장치의 경우는 아파트와 훼밀리하우스를 구분해야 하는데, 아파트는 비교적 견고하나 훼밀리하우스는 거의가 빈약해서 완전히 바꿔야 한다는것.

아파트 역시 이사전 문짝에 달린대로 놔두지말고 실린더가 달린 자물쇠장치를 덧붙여 설치해야 안전하다는 것이다.

미국생활이 짧은 교포들은 열쇠생활이 몸에 배지않아, 이사올때 수퍼에게서 받은 열쇠만으로 안전한줄 믿으나 그렇지 못한 경우가 허다한 실정이라는 것이다.

토마에 살면 토마법에 따라야 하듯이, 미국에 살면 열쇠관념부터 뚜렷이 가져야 된다는 것이 「열쇠·경보」업자의 조언이다.

아파트의 열쇠를 바꿔야 하는 대표적인 케이스는 ▲이사왔을때(아침이나 늦에도 그날 저녁까지는 전체를 바꾸던지 혹은 실린더가 달린 새 자물쇠를 추가할 것) ▲아파트주변 혹은 동네에서 열쇠꾸러미를 잃었을 때 등이다.

아파트문을 더욱 안전하게 하려면 2개의 실린더 자물쇠를 달아야 한다는 것이다.(1개만 달았을 경우 자투긴 빠루로 확 제끼며 열린다고.)

수퍼가준 열쇠로는 안심못해 경보장치 설치하는게 바람직

업자가 밝히는 최고의 상표자물쇠는 ▲미제—Medeco Body Guard ▲프랑스제—Sichet Security를 추천했다. 가격은 보통 95달러정도.

무엇보다 수퍼를 믿지말라는 것이 업자들의 권고인데 수퍼가 자주 바뀌는 경우는 더욱 믿지 말아야 하며 어떤 경우는 열쇠꾸러미를 제3자에게 팔아버리는 경우도 있다는 경고다.

다음으로 가게의 경보장치는 최근들어 적외선 탐지기(Infrared Detector)가 많이 애용된다는 것이다.

종전에는 창문에 은박지(Aluminium foil)를 발라 경보에 연결했으나 절도들이 벽·천정·바닥을 뚫고 잠입, 이것은 효과가 없어졌다는 것.

탐지기 종류에는 마이크로웨이브 디텍터, 초음파(Sonic) 디텍터, 사운드 디텍터(소리를 탐지해내는 것)로 구분되는데 이중 적외선탐지기장치는 어떤 물체가 움직이면 10초내에 경보에 연결이 된다는 것.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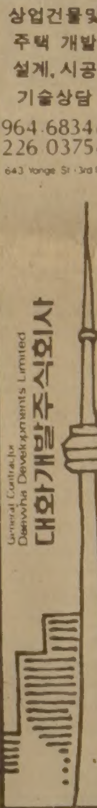
이 탐지기의 단점은 차단물체가 있으면 뚫고 나가지 못하는 것과 예민한만큼 고장이 잦은 것을 들수 있다고 한다.

설치비는 약 4백50달러에 매달 40달러씩 지불.

사운드 탐지기의 경우는 유리 혹은 벽을 뚫는 소리가 나면 경보가 울리는데, 이것은 도둑이 내는 소리와 다른 소리를 구별하지 못하는 단점이 있다.

교포상인들은 요즘들어 적외선탐지기 경보장치를 하는 추세가 급격히 늘어나고 있다고 업자들은 말했다.

요한화랑·기독교회관
각종종교서적
액자 및 화성상 화화
초상화
☎ 532-7909
549 BLOOR ST

상업건물및 주택 개발 설계, 시공 기술상담
964-6834(B)
226-0375(R)
643 Yonge St. 3rd fl.

General Contractor Daewha Developments Limited
대화개발주식회사

한국비데오센타
- 각종 비데오테잎 대여전문
- 품질보장 · 신용본위
- 비데오 기계 · TV판매
678 BLOOR ST. WEST
☎ 532-0210 손병헌

1983학년도 미주장로회 신학대학(토론토 캠퍼스)

신·편입생 모집 요강

본 대학에서는 아래와 같이 학생을 모집하오니, 사명있는 많은 분들의 응모있으시기 바랍니다.

과정	과구분	자격	수업연한	취득학위	특전
학위	교역(신)학석사 (M.Div)	①수세후 2년이상자 ②정규대졸업자, 동등이상자	3	교역(신)학 석사 (M.Div)	①졸업후 총회고시를 거쳐 노회에서 안수한다. ②졸업생전원은 본총회와 모국총회산하에서 활동한다.
	신학사과정 (B.A)	①수세후 1년이상자 ②고졸자 동등이상자	4	문학사 (B.A)	①졸업후 교역학, 기, 교육학과 2년에 편입된다. ②졸업생전원은 본총회산하에서 교육전도사가 된다.
	교회음악과	①수세후 1년이상자 ②고졸자 동등이상자	4	교회음악학사 B. MUC.	①음악목사코스 ②졸업생은 노회에서 시행하는 장로고시 일부가 면제.
	교회음악석사	①음악학사 학위소지자 ②수세후 1년 이상자	2	교회음악석사 M.C.M	①음악목사코스 ②졸업생은 노회에서 시행하는 장로고시 일부가 면제.
비학위	성서과	학력제한 없음 ①수세후 1년이상자	2	수료증(노회인정)	졸업후 심사하에 본교에 진학할 수 있음.

1) 원서교부, 접수: 본대학교무과(오순절장로교회)
및 시험 장소 754 Indian Rd., Toronto, Ont. M6P 2E3 전화: (416)762-1495 (416)745-7370
2) 원서접수마감일: 1983년4월11일(월) 후5시30분
3) 전화문의할 곳: 영락교회 · 김재광 목사 전화: 423-9880
은성교회 · 장은덕 목사 전화: 699-5913
4) 구비서류: 1. 입학원서
2. 최종학교졸업증서및 성적증명서
3. 당회장 추천서
4. 사진 3매 (명함판)
5. 전형료 $50.00 (시험당일 지참)
★시험과목: 성경, 국어, 역사, 일반상식.
5) 시험일시: 1983년4월11일 오후6시부터
시험장소: 본대학 강의실
6) 합격자발표: 개별통지함 당일발표
7) 수업시간: 월, 화, 목 오후6-10시
8) 등록금: 학위과정 학점당 30불, 비학위과정(성서과) 100불
9) 개교일시: 1983년4월18일 오후6시(신입생 Orientation)
기타 접수된 서류는 일절 반환치 않음

미주장로회 신학대학 토론토분교장 최양선

한국일보

"北傀도발 올해가 고비"

南侵땐 初動분쇄… 對備 빈틈없게

全대통령、安保政策회의서 다각對處지시

정부는 25일 상오 청와대에서 全斗煥대통령주재로 제8차 安保政策회의를 열고 北傀의 도발가능성에 대비한 대책을 다각적으로 검토했다.

全대통령은 이날 회의에서 금년에는 어느때보다도 北傀의 武力도발가능성이 높다는 보고를 받고 北傀의 어떠한 도발이 있더라도 이를 분쇄할수있는 만반의 대비태세를 對內外的으로 완벽히 갖출것을 지시했다고 黃善必청와대대변인이 밝혔다.

全대통령은 『우리가 완벽한 대비태세만 갖추어놓고있으면 어떠한 도발도 두려워할 필요가없다』고 말하고 『만일 그들이 도발해올경우 初動단계에서 철저히 분쇄해놓으면 앞으로는 감히 사소한 도발도 해오지 못할것이라고 강조했다.

全대통령은 또 『우리가 갖고있는 각종조직을 재점검해 더욱 활성화하고 효율적으로 기능을 수행할 수 있도록 해야한다』고 강조하고 『특히 국가안보문제는 有關部處끼리 신속하고 긴밀하게 협조해 완벽한 대책을 세워나가야한다』고 당부했다.

이날 회의에서 관계 部處는 北傀가 최근 그들 내부의 경제사정惡化、金正日世襲체제등으로 빚어진 내부갈등과 이에따른 주민들의 불만, 점차 더 크게 벌어지고있는 한국에 대한 國力의 劣勢, 각종 국제회의의 서울誘致로인한 국제사회에서의 地位손상에서 오는 초조감、그리고 국제의회연맹(IPU) 등 국제회의 개최를 방해하기위해 금년에는 어느때보다도 무력도발할 가능성이 높다고 보고했다.

한국型 賃金모형 나온다

政府 보고서

업종·職種別…勞使합의바탕
顧傭안정 失業保險 모델도

정부는 우리실정에맞는 한국型賃金모형을 개발, 곧 발표할 예정이다. 업종별、직종별로 만들게될 이 한국型임금모델은 물가와 노동생산성, 기업지불능력등 기업내외적요인을 고려한 適正수준의 賃金체계를 갖추고 기업별로 勞使간의 자율적인 합의를 바탕으로 한것으로 이제도가 채택되면 學歷간, 職種간의 격차가 완화될것으로 보인다.

정부의 이같은 방침은 지난해 정기국회본회의에서 행해진 정부측 답변의 후속조치결과보고서에서 밝혀졌다. 政務 제1장관실이 지난해에 이어 25일 두번째로 발간, 의원들에게 배포한 이보고서에 의하면 정부는 또 장기적인 고용안정을 위해 올해안에 제5차5개년 경제사회개발계획에 맞춰 고용안정기본계획을 수립하고 한국실정에 맞는 고용보험(失業보험)제도 모델도 금년안에 검토할 예정이다.

정부는 또 私立학교교원의 人事침체해소와 士氣진작을 위해 需給범위내에서 계속私立학교교원을 공립학교 교원으로 공개채용하고 中·高校 남녀共學制의 확대실시를 위해 「共學適正규모학교模型」을 개발키로 하는 한편 작년도의 英才교육기초연구결과를 토대로 오는4월말까지 「英才교육종합방안」의 확정을 위한 공청회를 열예정이다.

營農자금 모내기전 85%放出
9백개 複合營農마을도 조성

정부는 작년에 시험실시의 준비가 끝난 농업災害보험제도의 본격적인 실시를 위해 올해안에 시험적으로 실시하고 本사업은 87년부터 시행키로했다.

정부는 또 營農자금지원규모를 작년 5천5백30억원에서 7천억원으로 확대(相互금융5천억원별도), 모내기이전에 연간방출계획의 85%수준을 공급하고 농가소득증대를 위해 ▲9백개의 複合영농시범마을을 조성, 농산물 규격출하와 포장사업을 지원하고 ▲10개 농촌工業지구를 선정, 농산물加工공장 4개소를 유치키로 했으며 ▲농촌소규모관광지 8개소를 개발하고 ▲「농가소득원 개발촉진법」의 제정을 추진키로 했다.

정부는 또 금년중에 기초의학을 전공한 사람을 補充役에 편입시키는것과 기초의과대학에 배치하며, 또 電話時報制를 釜山·大邱·光州·大田등 대도시에 확대실시키로했다.

중소기업지원을 위해서는 재정지원 6백92억원, 특별자금 4천5백억원을 지원하며 중소기업 신용보증제도개선을위해 보증비율을 지난해 73·9%에서 금년엔 82·5%로 인상키로했다.

이밖에 정부답변조치등 중요사항은 다음과같다.

▲國史協議會발족=國史교육에관한연구및 방향의 재정립을위해 20명내외의 史學者로 올해상반기중에 發足.

▲독립기념관名稱변경=各界의의견을 수렴키위한 공청회를 4월중에 개최할예정.

短資社통합 銀行설립

金融産業발전심의회 건의

재무부의 금융정책 자문기관인 금융산업발전심의회(위원장 具本湖한양대학교수)는 25일 10년이상 영업을계속한 선발단자회사중 2~3개 회사를 묶어 자본금1천5백억원규모의 대형은행으로 확대개편하는 문제를 검토했다. 중소기업에 대한 금융지원을 전담하게될 이은행은 수도권 또는 서울시역을 영업지역으로하는 지방은행이 된다.

금융산업발전 심의회는 단자회사가 중소기업에 돈을빌려줄경우 관리비용이많이들고 위험도가 높아 중소기업에대한 자금공급이 상대적으로 부진하므로 10년이상 영업을 계속해온 기존단자회사가 전문 중소기업에대한 금융지원을 전담하는것이 바람직스럽다는 취지아래 단자회사의 은행화방안을 제기했다.

이방안이 정부정책으로 추진될경우 자본금규모는 현재 시중은행의 1천억원보다 50%가량크다.

美고위將星들

"美7艦隊、東北亞 최우선防禦"

美防衛전력 "極東중시" 전환

소련의 極東해군력 증강에 따라 미국의 전략도 極東중시방향으로 분명하게 바뀌고있다.

한국을 방문중인 한미군고위장성은 25일 美제7함대가 비중을 크게 두고있는 지역은 東北亞 남지나해 인도양 順이라고 말하고 항공모함을 주축으로한 이지역의 美해군력은 작전상 전례없이 새로운 유연성을 보일것이라고 말했다.

이란 人質사태종결및 아프간사태의 장기화에 따라 인도양의 비중이 낮아진 대신 소련 극동함대사령부가 있는 블라디보스토크를 이웃한 東北아시아해역이 작전상 비중이 커지고 있어 7함대 함정의 15%인 함정13척이 고정배치되어 있다시피하고 있다고 밝혔다.

레이건 행정부가 추진하는 戰力증강의 중점을 짚어볼수있는 이 고위장성의 발언은 인도양항모수를 줄이고 과거 작전을 한일이 없었던 東海에 미국항공모함이 지난해 2척이나 작전을 벌였던 사실과 관련, 주목을 끌었다.

美해군력을 유연성있게 前進전개하겠다는 방침에 대해서는 아이클레국방차관도 언급한일이 있었다.

아이클레次官은 앞서 미국航母부대가 한국이나 일본과 東海에서 공동연습을 하는것이 韓美、또는 美日안보조약에 조금도 모순되지않는다고 말하고 그것은 航母기동부대의 당연한 역할이라고 말했었다.

이 고위장성은 한반도주변 해역에서 소련해군력의 동태가 局地的성격을 넘으면 미국측은 즉각대응 행동에들어가겠다는 신호를 한상보내고 있음을 상기시키면서 유사시에 소련해군력을 봉쇄하는데 대한해협의 전략적중심성을 높이 평가했다.

그는또 북한이 잠수함을보유하고있고 제조능력도 있으나 韓美양국군의 對潛 작전능력이 충분하기때문에 전혀 문제가되지 않을것이라고 내다보았다.

한편 미국이 鎭海를 해군항으로 사용할수있을지 카터행정부때 검토대상이 된일은 있으나 레이건행정부가 해군함정 건조계획을 확대함에 따라 이문제는 더이상 논의되지 않고있는것으로 알려졌다.

陸士등 방문
말聯 아마드國王

아마드·샤 말레이지아國王은 訪韓4일째인 25일 陸士와 한국이슬람교 중앙연합회(서울龍山區漢南洞)、현대그룹본사를 차례로 방문하고 하오늦게는 金相浹국무총리와함께 駐韓말레이지아대사관 新築개관식에 참석했다.

民正、사무차장등 下位당직자
4월1일 人事단행

民正黨은 사무차장 정책조정실장및 나머지 중간및 下部黨職者에 대한 人事를 오는 4월1일께 단행할 방침이다.

李鍾贊원내총무는 25일 국회職개편도 이무렵에 이루어질것이라고 전망하고 『국회상임위원장은 專門性과 對野관계등을 감안、全員교체쪽보다는 1~2명이 留任될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

그는 또 『국회요직 개편이 끝나면 4월6일 民正黨소속 의원 세미나를 열어 의원들의 국회常任委를 再配定할방침』이라고 말하고 『常委재배정에 있어서는 가급적 兼職의원의 有關常委 배정을피하되 전문성과 출신지역등을 감안해 배정하겠다』고 밝혔다.

李총무는 私見임을 전제, 『4월임시국회는 4월11일께 會期20일정도로 소집할방침』이라며 『구체적인 日字및 日程과 議題등은 4월초순께 與野총무회담을 열어 결정하겠다』고 말했다.

中小企業 지도事例
全대통령、보고받아

全斗煥대통령은 25일 하오 청와대에서 柳鍾烈중소기업진흥공단이사장등 15명으로부터 중소기업指導사례를 보고받았다.(사진)

가봉長官 接見환담

全斗煥대통령은 25일 하오 가봉의 장·바티스트·응고모·오비앙 청년·체육및 餘暇관을 접견하고 환담했다.

社告

오늘부터 매주 토요일… 한국美術史재조명
컬러企劃 「現代美術 100년」 連載

미술은 한 시대와 국민의 美의식을 가장 첨예하게 드러내 보이는 조형예술입니다. 우리나라의 현대 미술 1백년은 전통 水墨畵의 「물」과 도입된 서양 油畵의 「기름」이 근원적인 갈등을 겪는 바탕위에 서양미술 사조의 온갖 유형이 도입되어 부침을 거듭하면서 새로운 美를 모색해나가는 과정으로 전개되어왔습니다. 한국일보社는 26일부터 매주 토요일字 5면에 장기 컬러 기획물 「現代美術100年」을 연재합니다. 「現代美術100年」은 독자들의 절찬을 받으며 연재됐던 「컬러紀行世界文學全集」과 「文學史探訪」에 이은 본격적인 장기연재물로 한국현대미술1백년의 발자취를 작가와 그 현장을 중심으로 재조명하고, 문헌진 작가들을 발굴, 그들의 미술사적 위치를 정립하게됩니다. 필자 尹凡牟씨(32·사진)는 미술사현장을 직접 답사, 발로 쓰는 비평의 능력을 갖춘 젊은 미술사가입니다. 東國대학교, 대학원에서 미술사를 전공한뒤 현재 모교에서 교편을 잡고있습니다. 그는과거의 미술史나 미술에 대한 평가가 화단의 風俗史에서 크게 벗어나지 못하고있었던 수준을 극복하기위해 작가와 작품에 대한 美學的、시대사적 평가를 새로이 시도하겠다고 의욕을 보이고있읍니다. 한국현대미술의 1세기를 보내며 국내신문으로서는 최초로 시도하는 이 장기시리즈「現代美術100年」을 많이 애독해 주시기 바랍니다.

젊은 美術史家
尹凡牟씨 執筆

한국일보社

韓·EC 高位협의회
28일 서울開催

제1차 韓·EC(歐洲공동체) 高位協議會가 오는 28일 서울에서 개최된다. 이번 회의에는 한국측에서 李範錫외무장관을 비롯한 외무、재무、상공、동자、건설등 경제부처 局長級 9명이、EC측에선 빌헬름·하퍼캄프 EC執行委부위원장등 7명이 참석▲세계경제전망▲한국과 EC의 경제정세등에 관해 의견을 교환하고▲韓·EC간의 통상관계▲상호무역정책▲경제기술협력방안등을 협의한다. 韓·EC高位협의회는 매년 1회 서울과 브뤼셀에서 교대로 개최되는데 정부는 이 협의회가 한국과 EC간의광범위한 협력기반구축에 중요한 계기가될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蘇 제1副首相
그로미코 任命

【모스크바AP UPI=聯】 소련의 안드레이·그로미코(73)외상이 蘇연방최고회의간부회의에서 제1부수상으로 임명됐다고 소련관영타스통신이 24일 발표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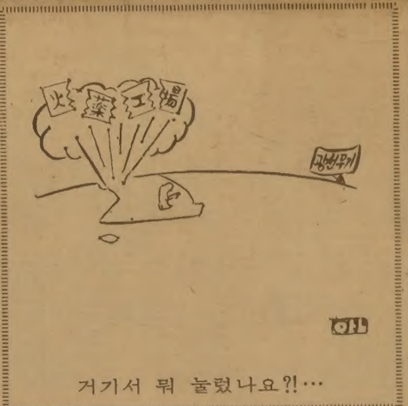
타스통신은 그밖의 구체적인 내용은 밝히지않았으며 그로미코가 외상직을 계속보유할것인지의 여부도 즉각알려지지 않았다.

한편 西方외교관들은 그로미코의 이같은 제1부수상임명이 앞으로 있을 일련의 소련권력구조개편의 첫 조치로 보고있다.

정통한 소련소식통들은 최근 그로미코가 브레즈네프사망으로 현재 공석중인 소련최고회의 간부회의장(국가원수)직을 맡게될것이라고 시사한바있다.

◇그로미코

社会漫評



거기서 뭐 눌렀나요?!…

地平線

우리가 자주 쓰는 外來語중에 스카우트라는 낱말이있다. 국내에서 최근 여자농구팀끼리 현재 고교재학생인 한 우수한 선수를 자기팀 소속으로 맞기위해서 치열한 스카우트戰을 펴고있다한다. 아직 결말이 깨끗지 않은것 같으나 많은 사람들의 관심·호기심과 더불어 화제의 대상이 됐던 것은 틀림없다.▼그러던차에 이번엔 업체종업원의 과열스카우트를 당국이 規制한다고 한다. 한 직장에 다니는 사람을 다른 企業이 더 좋은 직위와 보수를 내걸고 경쟁적으로 빼가는 현상이 盛行할때에 이를 과열 스카우트라고 합법하다. 創業을 하거나 사업의 확장 또는 기업 경쟁이 심할 경우 특수하게 필요한 人材를 손쉽게 메우는 길이 남의 社員을 뽑아내는것이다.▼그바람에 유능하고 값진 직책자를 빼앗기는 企業으로서는 좋지에 피나는 아픔·타격을 맛보기 일쑤다. 사실 작년가을부터 크게 늘어난 短資會社의 中堅級이상사원은 대개 스카우트에 의한 충원이었다. 경제가 오르막길로접어든 이제부터는 각분야 특히 成長산업에서의 스카우트 熱은 높아갈것이다. 그 대상으로된 사람들의 처지는 幸運과 祝福이 그만큼 서려들게 틀림없는 일이다.▼名詞이자 動詞인 스카우트라는 낱말은 일반적으로는 관찰·탐문의 뜻을 갖는다. 軍事用語로는 수색·정찰·정찰병을 말하고 스포츠用語로서는 新人發掘(者)이나 상대측의 경기스타일·전술·선수등에관한 정보를 內探보고하는 사람을 뜻한다.그러고보면 선수쟁탈전이 그本來의 뜻에서의 스카우트며、기업의 스카우트는 선수스카우트에서 연장된轉義인셈이다.▼2次대전직후 미국의 원자탄 제조기술비밀을 소련에 넘겨준 原子스파이 사건은 軍事用語의 뜻을 빈 극열스카우트 현상에 해당된다고 할수있으며 또 작년 미국의 국제사무기계회사(IBM)의 기술비밀을 日人이 빼내려다 들킨 사건은 産業스파이사건으로 이해되지만、역시 一種의 과열스카우트 현상이라 할수있다。스카우트는 곧企業間의 核心人材쟁탈이다.▼그같은 세찬 人材경쟁은 일면 사회의 발달과 成長의 상징이기도 하지만 반면 過猶不及이라 相互補完을 초과하는 過熱은 때때로 한기업의 파멸을 가져오기쉽다。禁物인것이다.

ARIRANG HOUSE
아리랑하우스
중화요리및 한식전문
716 BLOOR ST. W.
(at CHRISTIE)
TORONTO, ONT.
☎ (416) 532-2727

경영회계사
이 영 철
344 Bloor St, W
Suite 304
921-1294

KIMKOR
종합보험대리점
저금
교육·은퇴
부동산

김종조
535-0028
535-7200

영 숙
보석상

▲각종보석
▲다이아몬드
품질보장
▲최저가격
▲보석개조
교환매매
215 YONGE ST.
Toronto
Jewellery exchange 구내
368-7961(B)
690-5217(R)

日加
주간 <일가타임스>
日本과 캐나다의 뉴스및
생활에 도움주는 정보를
전하는 주간신문.
The Nikka Times
720 Spadina Ave., Suite 508
Toronto, Ontario
Canada M5S 2T9
☎ 923-2819

낭비없는 광고효과를
원하십니까?

저희 한국일보 광고는 낭비없이 정확한 광고효과를 통해서
여러분의 사업을 도와 드릴것입니다.

한국일보

캐나다 사회를 아는 지름길.
교포사회를 잘 알기를 원하시는 분이나 사업의 번영을 원하시는 분, 자녀교육, 이민문제, 고국소식등에관심을 가지신 분은 꼭히 구독해야 할
"한국일보"(THE KOREA TIMES TORONTO)를
잊지 마십시오.

주6일 발행(금·토일자는 합본)
구독료(선금) 월 : $10 6개월 : $55, 년 : $110
(크레딧·카드 넘버만 주셔도 됨)
전화 : (416) 533-2361

구독 신청서

이름 ....
주소 .... APT ....
도시 .... 주 ....
우편번호 ☐☐☐☐☐☐ 전화 ....
크레딧·카드넘버 : VISA .... 매스터카드 ....

보내실곳 : The Korea Times Ltd.
1025 Dupont St. Toronto, Ont. M6H 1Z7

「꿍꿍이속 크렘린」 심상찮다

그로미코의 副首相 전격승진… 그 背景

蘇 권력층 改編예고 심복보충、體制굳혀

◇안드로포프서기장㊧과 그로미코외상㊨이 지난1월초 바르샤바조약기구 정상회담참석차 프라하를 방문、구스타프체코슬로바키아 대통령의 영접을 받고있던때의 모습。【UPI】

브레즈네프가 죽고 안드로포프가 소련의 최고권력자가 된이래 가장 짙은 난기류가 요즘들어 크렘린宮을 휘감고 있는것같다.

안드로포프가 신장병과 심장병때문에 신병을 치료하느라 일주일이상 공식업무를 보지 못하고 있다는 보도가 나오더니 그로미코 외상이 전격적으로 부수상에 승진、임명되었다는 보도가 뒤를 따르고있다。

그런가하면 우스티노프 국방상은 헝가리 방문일정을 갑자기 취소하고 모스크바로 돌아왔고 티호노프 수상은 예정대로 유고슬라비아를 방문중에 있다。

와병설이 나돌고있는 안드로포프의 건강은 당장생명을 위협하거나 집권에영향을 줄정도로 심한것같지는 않은것으로알려졌다。

안드로포프는 그로미코의 부수상 임명을 결정한 정치국회의를 주재 한것이 틀림없으며 입원했던 병원에서 퇴원한것으로 알려지고있다。

안드로포프는 취임했을때부터 그가 수년전부터 심장병과 신장병등 지병을 앓고있어 건강상태가 좋지 않음이 확인 된바있다。

그렇지만 이같은 일련의 분위기는 결국 케야르 유엔사무총장이 27~29일 사이에 모스크바를 방문할예정으로 있어 케야르와 안드로포프 서기장과의 對坐여부가 그의 건강상태를 말해줄것으로 보인다。

모스크바에서 나돌고 있는 여러 루머와 크렘린宮의 난기류가 안드로포프의 신변과 크게 상관이 없다고한다면 관심의 초점은 그로미코 외상의 부수상임명에 모아질수 밖에없다。

그로미코가 親안드로포프적인 인물이라는 점에서 관심은 더욱 커지고있다。

그로미코의 부수상 임명이 소련지도층에서 실력자중 한사람인 티호노프수상의 외유중에 전격적으로결정되었다는 사실은 소련권력층에 일대개편이 임박하지않았나 하는 추측을 강하게 불러일으키고 있다。

그로미코의 부수상 임명은 그가 외상직을 조만간 사임하여 당내에서 다른역할을 맡을것임을 말해주고 있다。

소련에서는 부수상이 각료직을 겸직하지않는게 관행으로 되어있음을 감안하면 그로미코는 부수상으로 있으면서 티호노프수상이 행사하는 권력중 많은부분을 떠맡을 것으로보인다。

안드로포프는 작년 12월에 KGB(소련비밀경찰) 부 출신인 심복알리에프를 부수상에 임명하고 그에게 경제문제와 국내문제를 관장케 함으로써 행정부에 세력기반을 다진바있다。

따라서 그로미코가 앞으로 부수상으로서 담당할 임무는 외교및 대외무역등 주로 對外분야 일것으로 보인다。

그로미코의 부수상 임명이 갖는 가장중요한 의의는 티호노프수상의 권력을 분산시켜 행정부내에 안드로포프體制를 구축하려는 시도가 본격화되었다는 점이다.

그로미코의 부수상 승진 결정이 티호노프가 외유때문에 궐석한 정치국회의에서 전격적으로 결정되었다는 사실은 이러한 추측을 잘 뒷받침해주는데 충분하기 때문이다。

티호노프가 체르넨코와 함께 브레즈네프가 양성한 최고위급 실력자임을 감안해볼때 행정부에서의 티호노프 去勢는 안드로포프體制구축과 밀접한관계가 있는것으로 분석된다。

따라서 그로미코의 부수상승진은 외상교체를 예고하는 단순한 차원을 넘어서서 행정부고위관리와 당고위직에 대한 일대개편을 예고하는 전주곡으로 볼수도있다。

안드로포프는 작년말 당정치국원과 서기국원을 자신의 심복들로 보충할것으로 알려진바있으나 이를조심스럽게 미뤄온것으로 보도되었다。

브레즈네프와 펠셰등의 사망으로 정치국과 서기국에는 각각 3~4석의 공석이 남아있다。

소련은 다음주에 당의정책결정기관인 당중앙위원회 전체회의를 소집할 예정으로있다。

이때의 당중앙위 전체회의에서 그로미코부수상 승진에따른 추가인사와 당정치국원및 서기국원에 대한 인사가 단행될 가능성이대두되고 있다。

중앙위에이어 오는 6월에는 소련연방최고회의 전체회의가 개최된다。

6월의 연방최고회의에서 브레즈네프死後 공석으로 남아있는 국가원수格인 최고회의간부회의의장이선출될수도있다。

최고회의간부회의의장의 가장 강력한후보는 아직까지도 안드로포프이다。

안드로포프가 브레즈네프 死後3일만에 최고일인자 자리를 승계한이래 그의執權이 도전받고 있다는 구체적인시사는아직없다。

정보가 엄격히 통제되고 있는 소련에서는 정보의사실여부는 제쳐놓고라도 정보유출자체가 중요한 의미를 갖는 수가 종종 있기때문이다。【李炳圭기자】

「조용한 變身」…

이집트의 對蘇외교

이집트에「무바라크路線」이 더욱 선명해지고 있다。

지난 81년10월 사다트의 피살에 이어 대통령이 된 호스니·무바라크는 취임시에「당분간은 사다트前대통령이 추구해온 국내외 정책들을 충실히 따르겠다」고 밝혔었다。이제 그「당분간」이 거의 끝났다는 조짐들이 여기저기서 나타나고 있다。예상되던 바이기는 하지만 무바라크가 아랍진영에로의 복귀、소련과의 균형잡힌 외교수립이라는 조용한「외교적 變身」을 모색하고있는 구체적 움직임들이 눈에 띈다。

무바라크정부는 현재 소련과의 관계가 점차 개선되어 금년중에는 양국간에 대사교환이 이루어질 것으로 보고 있다고 카말·하산·알리 外相이 최근 밝혔다。

알리외상은 양국관계가 개선되고 있는 증거로 양국교역량이 81년도의 3억5천만달러에서 82년에는 4억5천만달러로 증가했고、지난 72년 양국관계가 악화되면서 추방되었던 소련 민간기술자들이 적은수이긴하지만 재고용되기 시작했다고 지적했다。

또 한가지 예로 지적된 것은 소련부수상 바비코프가 지난 3월초 이디오피아방문때와 귀국때 2번에걸쳐 카이로에 기착했던 사실이다。

이집트와 소련은 故사다트대통령이 지난72년 1만7천명의 소련군사고문단을 추방함으로써 악화되기 시작했으며 이집트가 미국과 화해를 추구하고 이스라엘과 캠프데이비드 평화협정을 체결함으로써 최악의상태에 빠졌다。

사다트는 자신이 암살당하기 1개월전에도 대사를 포함한 소련대사관직원들과 약 5백명의 기술자들을 재차추방、양국관계를 회복불가능한 상태로 몰고갔다。

알리외상은 또 東歐의 親蘇국가 불가리아와 대사교환등 관계개선을 해나갈것이라고 말하고 키프로스와도 같은 계획임을 밝혔다。

이집트가 이들 양국가와관계를 단절한것은 反이집트─親蘇행위를 한데 대한 응징이라고 사다트는 강경하게 말했었다。

◇지난해 12월 인도를 방문한 무바라크㊧가 자일·싱인도 대통령과담소하고있다。무바라크는 제3세계와의 유대를 강조하는등 전임자들과는 달리 독자적외교노선을 걷고있다。

무바라크는 이밖에도 오는 4월1일부터 10일간 極東순방길에 올라 중공과 북한、일본、인도네시아를 방문할 예정인데 이같은 순방외교는 지난번 뉴델리 非同盟정상회의에서 무바라크가 이집트는 비동맹국가들과의 다각적인 외교를 통해 국제협력에 기여하겠다고 밝힌 외교방향에 따른 것으로 보인다。

알리외상은 극동순방에 앞서 북한이 비동맹국가들인이란과 이라크의전쟁에 무기공급을 중지해야할것이라고 비동맹주의의 존중을 촉구하기도했다。

지금까지 나타난 무바라크의 외교노선은 나세르초대대통령과도 차이가나며 사다트前대통령과도 다르다。나세르는 제3세계국가 내서널리즘의 기수였고 사다트는 이스라엘과의 평화정책에 정치적생명을건 인물이었다。

그러나 무바라크에게서 그들 두사람과 같은 강한 개성은 찾아보기 힘들다。그대신 무바라크는 나세르시대의 사회주의경제및 反美노선과 사다트시대의 소비형경제및 親美노선등 극단적정책들 사이의 중간노선을 택하고있는것 같다。이러한 정책을 일부에서는「무바라크노선」이라고 평하고있다。

지난번 비동맹회의에서도 무바라크는 1시간동안 비동맹노선을 지지하는 연설을했다。이것은 그전의 아바나회의 때와는 커다란변화였다。아바나회의에서는 사다트가 미국과 손을 잡는대신 아랍세계를 배신했다는 비난의분위기가 이집트의 회원국자격정지거론에까지 이르렀었다。

무바라크는 뉴델리회의기간중 후세인 요르단 국왕등 아랍진영6개국 정상들과 별도의 회담을 갖기도했다。현재로서는 캠프데이비드체제를 유지하면서 아랍진영에 복귀하는것이 무바라크가 안고있는 최대의 과제인것같다。

상호의존관계가 깊은 아랍세계에서 이집트가 차지하는 비중은 상당하다。인구4천3백만명에 40만의 병력을보유하고있는것도 그렇지만 아랍각지에 퍼져있는 학자나기술자의 숫자도 무시할수없기때문이다。

이집트가 소련과의 관계를 개선하게되는 것은 일단 중동진출을 모색해온 소련의 시도가 주효했기때문이지만 관계가 정상화되면 이집트는 자국 무기의 많은 부분을 차지하고있는 소련제 무기부속품들을 제3국을 통하지 않고도 공급받을수 있게된다。

이경우 소련은 지난2월시리아에 무기공급을 재개한이래 중동지역에 재진출할수있는 또하나의 계기를 얻게되어、레바논에서의 미국과 이스라엘군철수가 지연되고 앞으로 중동에서의 美蘇간 세력대결이 미묘한 양상으로전개될 가능성까지점치게한다。

이집트는 지금까지 左에서부터 右까지 커다란 폭을 그리며 정치적인 변모를 해왔다。또 對이스라엘정책면에서도 전쟁에서 평화교섭에까지 변신을 했으나 이제는 보다 현실주의적인 길을 찾아 갈것같다。【朴來富기자】

蘇의「中東재진출」편승 武器 직접供給등 노려

"裁判자체도 문제있었다": 日서 復權운동 한창

安重根 의사 恨맺힌「冤罪」

26일은 安重根의사(1879~1910)의 순국73주년이되는날。지난1910년3월(26일)滿洲旅順형무소에서 31세로 순국한 安의사의 복권(復權)운동이 순국 73주년을 맞아 요즘 일본에서 한창 벌어지고있다。과연 安의사의 원죄(冤罪)는 풀릴것인가。

복권운동을 주도하고있는 인물은 東京변호사회 회장을역임한 일본법조계의 원로 가노·다꾸미(鹿野琢見)씨등을 비롯한 安重根연구회(회장 安藤豊祿)의 멤버들。

가노씨는 오는9월2일 安의사의 탄신 1백4주년을맞아 일본에서 安의사에관한대대적인 국제심포지엄을 갖는다。이와함께「安의사에관한 당시의 재판은 당연히 무효」라는 내용의 再審청구를 일본법원에 제출할 계획이다。

가노씨는 이를위한 기초자료수집차 연구회의멤버인 나까노·야스오(中野泰雄·日아시아大교수)、스즈끼·다꾸로(鈴木卓郎·朝日新聞편집위원)씨등과함께 지난24일 내한、26일의 安의사추모회에 참석한후 돌아갔다。

가노씨의 주장에의하면 당시 安의사의 재판은 우선 그 관할권부터 문제가있다。

다시 安의사의 의거장소였던 하얼삔은 淸나라땅이였지만 러시아의조계지로서 국제법상 일본의 재판권이 미치지 않는 곳이었다。그런데도 한국인이 일으킨행위를 일본의재판소에 회부、재판을 한 사법권의 행사는 원초적으로 무효라는것이다。

둘째는 당시「國事犯은 무기징역을 내린다」는 관례를 깨고 사형을 내렸다는점이다。安의사의 사형이 언도된 배경에는 당시 일본외무성정무국장이 旅順에 파견돼 일본인검사·판사를 만나 극형을 내려주도록 공식요청했다는점이다。즉 재판에 정치가 개입됐다는것이다。

세째는 安의사의 재판에 당시 한국변호사들이 이의변호를 신청했으며 또 영국을 비롯、러시아·스페인등 각국의 변호사들이 변론을 自請했지만 재판부에 의해 받아들여지지 않았다는 것이다。재판부는 그대신 일본인관선변호사를 선정、변론에 임하게했는데 이것은 피고인의변호인 추천에 대한 침해라는 주장이다。

가노씨는 이같은 점에서 安의사의 재심은 일본법원에서 받아질것이 확실시된다고 밝히고 이번 방한에서 새로운 자료도 수집했다고 밝혔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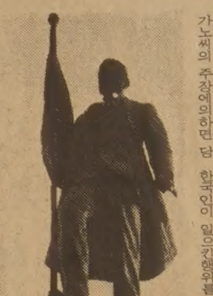
가노씨가 수집한자료는 1909년 다시 한국과 일본과의 관계다。

1905년 乙巳보호조약에 의해 일본은 한국으로부터 외교권을 박탈해갔었지만 사법권은 아직도 우리정부수중에 있었다。法理대로 따지더라도 당연히 安의사는 우리나라에 인도돼 한국에서재판을 받아야하는데도 일본재판소에서재판이행해진것은국제조약위반이란 주장이다。

이와함께 安의사의 재판은 人定신문부터 잘못됐다。당시 安의사는 신문을 義兵中將 독립군대장으로 밝혔는데도 재판부는「무뢰한」으로 취급、피고인이 받아야할 정당한 대우를 받지 못했다는 것이다。

한편 연구회의 일원으로함께온 스즈끼씨는「당시 安의사의 의거는 일본의 한국지배에 대한 반격으로서 한민족적이 상징적인「이벤트」였다」고 지적하고「이 이벤트를 어떻게 정확하게 역사적으로 재평가하느냐에 따라한·일관계에 새로운 진전을기대할수있을것」이라고말했다。

그는 또 安의사에 저격당한 이또·히로부미(伊藤博文)는 일본에서는 국회내에 동상이 세워지는등 일본의영웅으로서 평가되고 있다고밝히고 교과서문제와 관련하더라도 安의사를 하루빨리 복권、「한국의 위인」으로서 추앙받도록 해야 할것이라고 강조했다。【丁薰기자】



◇우리나라독립운동사에 찬란한 빛을 남겼던 安重根의사。순국73주년을맞아 최근 일부에서는 安의사를 復權하자는 운동이 활발하게 전개되고있다。

메아리

政策民願

여당인 민정당에서 政策民願38건을 정부에 건의했다고 한다(25일字 본보 11면)。黨조직을 통한 民意수렴 활동의 한나타남이라 할것인데、그 사이 수집된 政策民願을 그때 그때 정부에 보냈으나、「정부의 인식부족」으로 반영이 미흡했기때문에、이번에 그중 요긴한 것을 가려 뽑아 다시 건의했다는 설명이다。

그에 의하면 38건의 건의안은 지난 1년사이에 교육을 받은 민정당 基幹黨職者 3만2천60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延41회의 설문조사를 종합한 것이다。그 결과 나타난 提案건수는 8천2백17건、그중 20회이상 지적된 사안 13건、10회이상 지적된 25건을 추린것이 이번 건의의 내역이다。

설문응답자는 알수있듯、이 조사대상자는 여당의 指導責·活動責등 지역사회를 대변할만한「有志級」인사들이다。그런만큼 이건의를 소홀히 볼수가없고、그내용도 현실적으로 타당하고、절실한것이 많다。

그가운데서도 첫째로꼽힌 농약관계를 비롯하여 농기계 부품의 규격통일문제、영농자금 회수·통일벼出荷·燃料林채취 시기의 조정등 영농 관계건의가 더욱 절실한데、농촌에 살아보지 않고는 절감하지못할 내용이다。政策입안의 좋은 자료가 될것이다。

敬老승차권에 관한 건의도 사리에 합당하다。개인회사 버스는 무료로하라면서 國鐵철도와 公營지하철요금을 받는다는것은 앞뒤가 맞지않는다。

또 경찰관의 금품요구가 있다는 지적은、아직 그런 구석이 있었구나 하는 한탄과 함께、그런 告發을 서슴지않는 충정이 호감을 갖게 한다。

다만 이들 건의중에는 박수를 留保해야할 대목이 꼭 하나 있다。班常會에 관한것이다。

班常會에 관한 건의는 ①남성의 참석률을 높이고、그를위해 班常會날을 유흥업소의 휴업일로 지정할것、②班常會건의사항에 대한 회신을 빨리 할것、③공무원·공직자의 참석을 독려할 것등의 셋이다。

이중③에 대해서는 별 할말이 없다。

②는 좀 이상하다고 생각한다。엇그제 내무부는 지난 한해동안 15만2천건의 班常會건의를 받아、그 75%11만4천건을 해결했다고 발표했었다。해결率이 그만한데、회신이 궁금하다는 불만은 무슨뜻인가。아마 관청마다 그 많은 건의를 해결하느라 제때 회신을 보내 생색낼틈이 없었다고나 해야 설명이 되겠다。

이 점은 그렇다 치고 박수를、留保할수 밖에 없는 것은 ①의 후단이다。38건 건의중에서 극히작은 부분─例外중의 例外 같으나、그 함축이 중대해서 例外라고만은 못할 내용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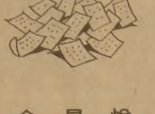
긴말을 할것없이、유흥업소더러 어느날 저녁에는 문을 닫으시오 할 권한이 누구에게 있다는 것인지를 나는 이해할 수가 없다。설혹 그런 권한이 있다한들、班常會를 이유로 유흥업소란 유흥업소의 문을 일제히 닫게 할수가 있을까。더구나 班常會에 참석않는 남자들이 몽땅 유흥업소에 들어앉아 있는 것도아닌데、유흥업소를 닫는다고 무슨 출석 독려의 효과가 있으며、내무부 방침에 班常會날은 班員자율에 맡긴다고 하였으니、그 발표대로 班常會가 班마다 다른 날에 열린다면、어느 날을 골라 유흥업소의 一齊休業令을 내려야할까。

그 보다 걱정은 유흥업소、그것도 申告만으로 개업 가능한 영세업소와 종업원의「生業」이다。하루 저녁 갈곳 없는 시민생활의 불편은 참는다고 해도「生業」을 침해한다면 심각한 일이다。

지금까지 通禁해제·校服자유화、인·허가사무의 간소화등 일련의 自律化가 제5공화국을 밝게 했던 시책들이다。너무많은 規制는 위반─단속─規制강화의 악순환을 낳을뿐이란 인식이 그 밑에 깔려 있은 것이라 생각한다。이런 政策방향에 비추어、班常會를 위한 유흥업소 휴업은 너무나 엉뚱하다。혹시 規制방식으로 정부시책을 밀고 갈수 있다는 發想이 아직 남아 있는가、걱정이 되기도 한다。

官의 規制는 적을수록 좋다。그래야 사회가 정상적으로 발전한다。지나치게 規制的인데가 있다면、班常會마저도、그 存否를 따져 볼필요가 있다。여기까지는 이르지 않더라도、기왕 班常會를 거론할바에는、「양반」과「상놈」을 연상시키는 그 日本 殘滓이름부터 고치자고 했더면、하는 아쉬움이 없지는 않다。

이「玉의 티」를 뺀다면、이번 민정당 건의는 정부로서 충분히 고려할만한 것들같다。黨政협의라는 名分이 아니라、여론을 좇는다는 차원에서도 타당한 건의는 즉각 반영하는것이 정부의 당연한 태도일줄 안다。그렇지 않고는「인식부족」의 핀잔은 면할길이 없다。



金昌悅 <編輯委員>

記者의 눈

李박사의 두 얼굴

초대 대통령 李承晩박사는 1875년 3월26일생이었다。오늘은 그의 1백8회째 생일이다。

역사적 인물로서의 李박사를 생각할때 많은사람들은 영화에서의 오버래프와 같은 중첩된 영상을본다。

가령 국사편찬위 朴成壽편사실장의「격동、朴容萬과 李承晩」(政經文化 3월호)은 이렇게 쓰고 있다。「그의 死後평가는 追叙였다기보다 削奪에 가까운 것이었다。어떤 정치가를 막론하고 死後에 조금은 비난의 화살을 맞아 생전의 영광을 잃게되는 법이지만 李承晩대통령의 경우는 조금정도가 아니라 너무 심해서 도리어 동정을 받을정도였다」─「追叙」와「削奪」의 오버래프이다。

지난11일자 한국일보2면「政局往來」에는 국회의사당圓型홀에 역대 議會지도자들의 胸像을 세우는문제가 보도되어있다。民正黨의 李鍾贊총무는「申翼熙선생(2代의장)부터 모셨으면 좋겠다。初代의장인 李承晩박사는 國父로서 흉상을 세울만한 분이지만 사람에 따라서는 異論이있을수 있기때문에 충분히 논의한뒤에 결정할 문제다」고 말했다한다。─「國父」와「異論」의오버래프이다。

李박사는 48년5월31일 대한민국 첫 制憲국회에서 최고령자로 임시의장이 되고、이어서 곧 初代의장에 피선됐다。그는『옛날 君主치하에서는 국민들이 국사에 참여하지 아니하였으나 민주정부하에서는 국민이 이나라의 統治者가 되는것』이라고 떨리는 목소리로 취임사를읽었다。그몇년뒤인51년12월임시수도釜山에서 兩院制및 대통령直選制개헌안이 부결됐을때 그의떨리는 목소리는「대통령직선제를 반대하는 국회는 民意를 배반하는 하늘아래 처음보는 국회다」라고 怒號했다。─「主權在民」과「하늘아래 처음 보는 국회」의 오버래프이다。

李박사가 80세生辰을 맞던날 기자는 대구모학생참단원의 한사람으로 서울운동장에서「해피버스데이·투·아우어·프레지던트」를 불렀다。다시 60년4월19일에는『李대통령下野』를 요구하는 대학생대열의 한사람이었다。─기자에게있어서도 그는「萬壽無疆」과「下野」라는 상반된 영상의 중첩이다。

프랑스의 정치학자 모리스·듀베르제에의하면 정치는 지배자와 被지배자간의 질서와 正義를 자기편에가지려는 싸움이며、따라서 야누스的 두얼굴을 갖는다。그렇다면 정치인인 李대통령 역시 두 얼굴을 갖는것이 당연할것이다。다만 그는 李총무의 말처럼「國父」였기에 국민들의 一元的 願望의 대상이되었던것이고、따라서「중첩된 映像」으로는 국민을 설득할수없었던것인지 모른다。

현재의 11代국회에는 많은 4·19세대 議員이 있다。바로 그런 이유에서、이번 胸像건립논의에서는「異論없는분」부터가 아니라「異論있는분」부터 진지한 토론을 거쳐서 결정해야 한다는 생각이 든다。

李대통령이 初代국회의장이었음은 부인할 수없는 사실이다。읽기가 귀찮다는 이유로 역사의 어느 한페이지를 뛰어넘어 그다음 페이지로 넘어갈수는 있을 것이지만 그렇다고 한페이지를 찢어버리고만다면 역사는 그순간부터 왜곡될것이다。王을 처형하고 의회를 폐쇄했던 크롬웰의 흉상이 英國의 의사당 안에 서있는 까닭을 음미해볼필요가 있지 않을는지、기자의 私見을 적어보았다。【朴涌培정치부장代理】

컴퓨터-싸이언스코스 학생모집 (국내·외)

저희 Kanata학교는 Minis, Micros and Main frame컴퓨터 시스템을 갖춘 컴퓨터·사이언스 코스를 가르칩니다.

DIPLOMA IN BUSINESS COMPUTER PROGRAMMING AND SYSTEMES ANALYSIS.

우리들의 집중적인 6개월 프로그램을 COBOL, RPGII, BASIC, ACCOUNTING AND SYSTEMS DESIGN을 훈련함을 특징으로 삼습니다.

매 새학급은 5주마다 편성되어 시작합니다. 직장도 알선합니다.

우리의 성공적인 직장 알선율을 알아 보십시요.

자세한 사항을 알기를 원하시면 960-8708 또는 장거리 무료전화 1-800-387-1235로 전화하면 됩니다.

※외국학생, 국내학생 환영함.

Kanata Institute of Computer Science Inc.

10 St.Mary Street,
5th Floor, Toronto, Ontario
Canada M4Y 1P9

HEMLO금광의 전망은?

WALL STREET JOURNAL에 의하면 온타리오주 THUNDER BAY, LAKE SUPERIOR 북쪽에 위치한 HEMLO지역의 금광은 남아프리카 금매장량을 능가한다고 합니다.

이에 대한 금광의 전망과 개발에 관련된 회사주식동향을 아시고 싶은 분은 직접 전화 또는 아래의 쿠폰을 작성하셔서 보내주시면 자세히 알려 드리겠읍니다.

캐나다및 미국주식 취급10여년 경험。
공인증권상담인 김기석 960—3851

NAME
ADDRESS
CITY
PROVINCE POSTAL CODE
TEL(B) (R)

Midland Doherty Co
KEY S. KIM
2 BLOOR ST. E. 30FL.
TOR. ONT. M4N 1A8
(TEL)(416)960-385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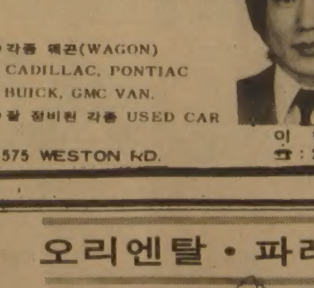
Grant Brown

■각종 왜곤(WAGON)
CADILLAC, PONTIAC
BUICK, GMC VAN.
■잘 정비된 각종 USED CAR

이 한 구
☎ : 247-7161

1575 WESTON RD.

오리엔탈·파레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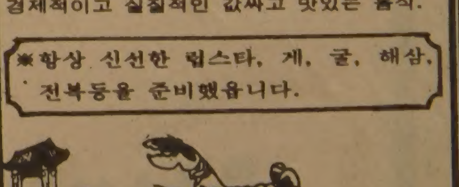
529 BLOOR ST. W. TOR.
533-3545·6

意安飯店 의안반점

홍콩식 그대로의 분위기
새벽 4 시까지 영업

일류 요리사가 만드는 전통적인 광동식 요리
경제적이고 실질적인 값싸고 맛있는 음식.

※항상 신선한 럽스타, 게, 굴, 해삼, 전복등을 준비했읍니다.



◎영업시간 :
월~금 : 10AM~4AM
토 : NOON~4AM
일 : NOON~2AM

124 CHESTNUT
171 Dundas St. W. 와 Chestnut 코너)
☎ : 977-9734

취업特典없고 流通업계 외면

걸도는 販賣士제도

시험合格者6,200여명이 방황

◇公務수행차량 첫선 25일 첫선을 보인 공무수행차량。정부는 官用차량의 私用을 방지하고 기동력을 높이기위해 정부관리의 업무용 승용차와 합승、특수차량의 앞문양편에 「공무수행정부」라는 표시를 하도록했다。

상거래질서를 확립 하기위해 정부가마련한 판매사(販賣士)제도가 겉돌고 있다。

판매사제도란 이웃 일본과 미국등 선진외국에서는 오래전부터 채택하고있는 제도인데 정부가실시하는 자격시험에 합격한 판매사를 일선매장(賣場)에 취업시켜 서비스를 개선케하고 유통질서를 확립하는데 기여케한다는것。

우리나라는 지난 81년12월31일 상공부가 시장법을고쳐 판매사제도를 신설, 1년쯤후인 82년11월21일 첫국가시험을실시해 6천2백여명의 판매사를 배출시켰다。

그러나 판매사자격을 취득한 판매사에대해 법적으로취업우선권이나 추천제등 활용방안이 마련되지 않은데다가 백화점이나 시장등 유통업계마저도 이들을 외면, 취업을 못하거나 자격이없는 일반점원들과 별차이가없어 유명무실한제도가 돼버리고말았다。

상공부는 지난82년 실시된 3급 판매사자격시험에 이어 오는9월에 2급 판매사, 내년에 1급 판매사 시험을 치를 예정인데 합격자에 대한 구체적인 활용책이 마련되지 않는한 원래의 목적을 달성하기 어려움은 물론, 자격증을 위한 형식적인 제도로 그칠수밖에 없는 형편이다。

3급 판매사 자격취득자들은 유통업체에 취업하기위해 특별히 관계분야의 공부를 했거나 유통업체에 종사하면서 보다 나은 대우를 받기위해 시험을 치른 사람들。

현재 자격을 취득한 판매사들은 S백화점에 1백여명, L쇼핑센터에 40명, H슈퍼체인에 30여명정도가 취업하고 있으나 인사고가나 급여등에서 판매사자격을 소지하지않은 사원과 차이가 없으며 취직을 할때도 자격증소지자에 대해 아무런 우선권이나 혜택을 받지 못하고 있고 업계에서 추천을 의뢰해오는 경우도 없다。

관계당국의 책임도 크지만 유통업체의 판매사자격제도에 대한 인식이 부족한 것도 큰 요인이 되고있는 것。

미국이나 이웃 일본의경우 10여년전부터 이제도를도입, 자격자에 대해선 채용, 인사고가, 급여, 상여금 지급등에서 혜택을 주어 큰효과를 거두어 지금은 완전히 정착된 상태다。

판매사 자격을얻고도 2개월째 취업을못하고있는 金정문씨(全南 寶城郡 筏橋邑 鳳林里270)는 「86 아시안게임과 88올림픽을 앞두고유통종사원의 자질을 향상하고 유통구조를 개선하기위한 이 제도가 실사회에선 아무가치가없다」며 정부가 적극적인 활용대책을 세워줄것을 주장했다。

지난82년 상공부 주관으로 대한상공회의소가 실시한 제1회 3급판매사자격시험에는 1만6천1백64명이 응시해 6천2백78명이 합격, 자격증을 얻었다。

판매사자격시험은 1·2·3급 3종류로 1급은 대규모유통업체의 경영자나 지점장으로서 갖춰야할 자격을, 2급은 소규모판매업소의 주인 또는 유통업체의 분과장의 자격을, 3급은 일선에서 판매활동을 벌이는 판매원의 자격을 테스트, 합격하면 자격증을 주게돼있다。 【方致俊기자】

조사받다 졸도한 金根祖씨숨져

토지경매방해혐의로 치안본부수사관에의해 연행돼 부산에서 조사를받던중 졸도했던한일합섬이사 金根祖씨(45)가25일하오3시50분숨졌다。

金씨는 지난22일상오 연행됐는데 23일새벽0시께졸도, 釜山大병원에서 뇌수술을받았다。

치안본부는 金씨의 시체를 부검키로하고 수사를 맡았던 金萬熙경위(38)가 가혹행위를 했는지에대해 조사중이다。

SHANGHAI
레스토랑
●군만두 ●찐만두
●짜장면 ●우동
334 SPADINA AVE.
596-7311

"소비자 眩惑광고 말라"

保社部 "外製착각" 7개化粧品社에

보사부는 25일 외국화장품과 기술제휴를맺고 외국상표로 화장품을 생산시판중인 7개 화장품회사에대해 외제로오인될 우려가있는 광고를하지말도록 지시했다。

보사부는 이날 시판중인기술제휴화장품 대부분이 용기나 포장지에 돋보이게 영문표기를하면서 한글표기는 아예없애거나 작게하는등 소비자들을 현혹시키고있다고 지적, 반드시 한글표기를 직접인쇄하되 소비자가 쉽게알아볼수있도록 큰글씨로 기재토록 해당업체와 화장품공업협회에 지시했다。

公務員센서스 실시 4월20일~27일에

총무처는 오는 4월20일부터 27일까지 전체공무원을 상대로 종교·취미·외국어해득능력·주택사항등 모두 83개항에걸쳐 센서스를 실시할 계획이다。

이번 센서스는 공무원들의 후생복지, 제도개선, 인사운영 기초자료를 얻기위해 실시된다。

한국火藥、폭약터져 넷死亡

仁川공장 4시간새 2차례 잇달아

경찰、다이너마이트취급 잘못 추정

【仁川】24일 하오 인천시南區古棧洞50 한국화약(사장 신현기) 공장에서 작업도중 뇌관과 다이너마이트가 잇달아 터져 일하던 종업원 4명이 숨지고 2명이 중상을 입어 富平성모자애병원에 입원가료중이다。

경찰에 따르면 이날 첫번째 사고는 하오 4시37분께 작업중 뇌관이 터져 일하던 金천성씨(47·仁川中區新興洞2街)가 그자리에서 숨지고 양덕만(36·仁川 南區鶴翼洞220) 배영진씨 (44·仁川南區論峴洞) 등 2명이 중상을 입고 병원에입원 가료중이다。

또 4시간20분뒤인 이날하오 8시57분께 생산부공장에서 원인모르게 다이너마이트가 터져 일하던 종업원 황원식씨(33·華城郡烏山邑烏山4里)와 金용덕씨(44·仁川市南區古棧洞460)李진억씨(48·서울龍山區孝昌洞100) 등 3명이 그자리에서 숨졌다。

수사에나선 인천 東部경찰서는 25일의 1차사고는3명의 종업원이 작업중 숨진 金칠성씨가 화약을 잘못 취급해 마찰이 생기면서 뇌관이 폭발해 일어났고 3명이 사망한 2차폭발사고는 종업원들이 다이너마이트 혼합작업을 끝내고 기계를 청소하면서 기계에 남은 폭발성 원료에 충격을주어 일어난것으로 보고있다。

이 폭발사고로 14·85㎡(4·5평)및 66㎡(20평)의 단층 작업장이 반파됐는데 사고에 비해 인명피해가 적었던것은 작업장마다 두께40㎝, 높이 4m의 흙으로된 방호벽이 설치돼있고 3~4명만이 근무하고 있었기때문으로 경찰은 보고있다。 【鄭】

有志들이 상습도박 판돈億臺、14명令狀

【木浦】光州지검 木浦지청 金成浩검사는 25일 전남 務安郡一老邑 농협단위조합장 朴炳彦씨(47·務安郡一老邑月岩里99)와 金英完씨 (49·務安郡一老邑月岩里2) 등 13명을 상습도박혐의로, 高亨柱씨(40·務安郡一老邑月岩里)를 도박 개장혐의로 각각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검찰에 따르면 朴씨등은 지난24일 하오 5시부터 밤10시까지 高씨집 2층방에서판돈 3백 20만원을 놓고 속칭 도리짓고땡 화투노름을 하는등 지난해 11월중순부터 지금까지 모두 30여차례에 걸쳐一老邑내 가정집과 여관등을 돌면서 1억원대의 도박을 해왔다는것。 【鄭】

成大제적생 10명 시위협의 구속

서울東大門경찰서는 25일 金용기군 (22·成大신방과 4년제적)、한상철 (21·〃사학과 4년제적)、李근덕(21·〃)、徐창호 (21·〃도서관학과3년제적)、李헌필군 (21·〃) 등 成大제적생10명을 집회및시위에 관한 법률위반혐의로 구속했다。

경찰에 의하면 이들은 민족문제연구회·동양사상연구회등 교내 이념서클회원들로 지난22일상오 도서관에서●반정부 유인물 2천8백여장을 뿌리고 솜방망이로 만든 횃불을 휘두르며 시위를 주도한 혐의다。

窃盜피해자 毒殺기도

善山 犯行알려지자 김치독에 뿌려

고교생 영장

【龜尾】경북龜尾경찰서는25일 자신의 절도범행사실을알고있는 피해자를 두차례에걸쳐 독살하려했던 모고교1년 金모군(15·長川面明谷洞)을 절도및 살인미수혐의로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경찰에 따르면 金군은 지난2월7일 하오10시께 마을앞 빈터에 주차해있던 경상여객 소속 경북 5아2067 6호 시외버스 (운전사 趙仁植·40) 문을 열고들어가 차안에있던 장갑5켤레와 화장지등 2천2백원 상당을 훔쳐냈다。

金군은 다음날 자신의 범행사실이 드러나고 운전사趙씨가 이같은 사실을 경찰에 알리려한다는 것을 동네주민들에게 전해듣고 趙씨를 독살, 자신의 범행을 숨기기로 결심, 자기집에 있던 제초제농약 한병을 가지고 趙씨의 집에 몰래 들어가 물독과 김치독, 간장독등에 나누어 넣었다。 그러나 다음날 식수에서악취가 풍겨 미수에그쳤고 지난3월21일 밤10시께 같은 방법으로 독살을 기도했으나 미수에 그쳤다는 것이다。 【鄭】

버스路線변경등 1~3개월前 豫告

行政예고제 확대

정부는 국민생활과 밀접한 정책이나 행정시책을 立案, 시행할때는 1개월에서 3개월까지의 豫告기간을 갖도록 하는 行政豫告制를 확대 실시할 방침이다。

총무처는 25일 각부처에 행정예고제의 확대실시를 위한 지침을 통해 ▲市街地나 도로의정비, 버스路線변경등 국민생활에 불편을 끼치는사업 ▲예방접종, 가축방역등 국민의참여를 필요로 하는사업▲무허가건물철거등 국민에게 시간적 경제적부담을주는 사업▲대학입시제도변경, 공무원및 각종자격시험 내용변경등 국민생활에 영향을미칠수있는 각종제도 ▲都給행비 사무처리규칙및계약、사무처리규칙의 개정등 국민이사전에 시간적여유를 갖고 대비해야할 사항등은 반드시 1개월이상 豫告하도록 지시했다。

이 지침은 또 ▲법률안은 국회移送 3개월전까지 ▲대통령令은 효력발생時點전 3개월이상 ▲總理令, 部令은 2개월이상 ▲훈령은 40일이상 ▲기타정책은 1개월이상으로 예고기간을 설정토록했다。

이 지침은 이밖에 정책및 사업試案작성때 계획을 사전에 예고하여 청문회、공청회、각종위원회및 전문가의 의견등 여론을 반영하고 예고사항은 각종 매스컴 행정게시판 반상회보 官報및 안내책자등을 이용하거나 利害관계인에게 개별통지등 적합한 방법을 쓰도록 했다。

휴식·待機환자 入院 포함금지

保社部、의료기관에

보사부는 25일 환자가수술처치 휴식안정 대기등의상태로 병원등 의료기관에 12시간이내 머물렀을경우 그시간을 입원시간으로 계산하지말도록 보험단체와 의료기관에 지시했다。

보사부는 이날 「의료보험환자의 입·퇴원료산정기준」을통해 「입원일수는 입원및 퇴원시각을 기준으로 하지않고 입원일과 퇴원일을 모두 포함한다」고 밝히고 입원실 또는 집중치료실에 수용된경우 이외에 처치실이나 응급실에있는 시간은 입원으로계산할수 없다고 못박았다。

보사부의 이같은 지시는그동안 의료기관에서 환자가 하오에입원, 다음날 상오퇴원하더라도 2일 입원료를 받는등 부당한 경우가 많다는 지적에따라 취해진 것이다。

建築활동 好轉

작년比 50%나늘어

올들어 주택건설경기의 회복에 주도돼 건축활동이 크게 호전되고있다。 25일 건설부에따르면 올들어 2월말까지 건축허가면적은 3백10만9천㎡로 지난해 같은기간의 2백5만4천㎡보다 51·4%나 증가했다。

부문별로는 주거용 건축허가면적이 1백58만9천㎡로 작년동기의 78만6천㎡보다 무려1백2%나 늘었으며 건축허가세대수도 1만3천7백85세대로 작년동기의 8천4백69세대보다 62·8%나 증가했다。

이밖에 상업용건축허가면적은 작년같은 기간보다 42·8%, 공업용 건축허가면적은 3·7%, 기타는 8·7%가 각각 증가했으나 문교·사회용건축허가면적만은 9·4%가 감소했다。

한편 지난2월 한달간의건축허가면적은 1백69만㎡로 지난해 같은달의 1백7만㎡보다 57·9%나 늘어 올들어 건축활동이 날로 호전되는 추세를 나타냈다。

5行뉴스

◆行商 냇가에 떨어져숨져

【釜山】25일 상오6시께 부산東萊區 安樂2洞151 주공아파트11동앞 하천에서 술에취해 집으로 돌아가던 고물행상최계출씨(59·海雲臺區盤松3洞8)가 높이 3m아래 하천으로 떨어져숨졌다。 【鄭】

◆善仁학원理事長에李滿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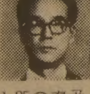
【仁川】학교법인 善仁학원은 25일 이사회를 열고 이사장에 李滿씨(전이산)를, 仁川대학장에 유봉철씨 (전漢陽大 경상대학장) 를 각각선임 문교부에 승인을 신청했다。 【鄭】

◆民防衛통지 10일전에

내무부는 25일 지금까지민방위교육소집통지를 3일전에하던것을 앞으로 7일전으로 연장키로 했다。

내무부는 또집병이나 관혼상제등으로 교육을 연기하려는 민방위대원은 종래에는의사진단서 민방위대장확인서등을 첨부토록하던것을 앞으로는 연기신청서에 의사혹은 민방위대장의 확인만 받으면 연기가 되도록 간소화했다。

◆독립유공자 金奭東씨



독립유공자 金奭東씨(사진)가 25일하오 1시서울西大門赤十字병원에서숙환으로 별세했다。향년61세。발인은 27일상오11시 장지는 경기高陽郡碧蹄화장장。연락처⑱9661

한국일보

試驗管쌍동이 誕生

美 뉴욕병원서

미국최초의 쌍둥이 시험관아기가24일뉴욕의 노르쇼대학병원에서 제왕절개수술로 탄생했다。

병원대변인 댄·로제트씨는 이 쌍둥이는 터드·틸런씨와 부인 낸시의 아기로 女兒히더·재인 (3·3㎏) 이 상오10시53분 (현지시간) 에 이어 1분후에 男兒 터드·맥도널드2세(3·2㎏)가 태어났으며 산모와 아기는 모두 건강하다고 말했다。【外】

승용차 뺑소니 女人3명 重傷

【南原】24일밤11시20분께 南原市道通洞 道通정미소 앞길에서 시내 中央교회에서 예배를마치고 집으로가던 김성녀씨 (70·여·南原市月洛洞303) 등 3명을 시내로들어오던 승용차가 정면으로 받고 뺑소니쳤다。

차에치인 김씨를 비롯, 안재순씨 (59·여·南原市月洛洞411) 진연남씨 (62·여·南原市月洛洞) 등 3명은 全州예수병원으로 옮겼으나 중태다。【鄭】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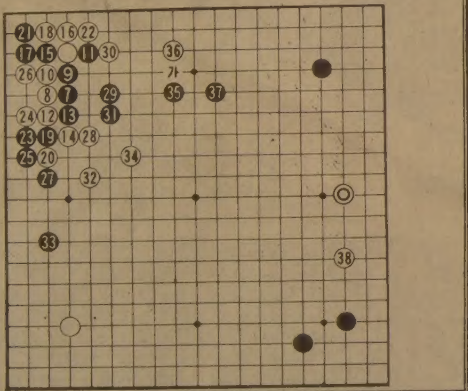
도깨비 안의섭

결혼예물 보석및시계
미도파
다이아몬드, 반지
목거리, 팔지, 목거리
B536-1692
H245-3539

名人戰 제14기 挑戰者決定리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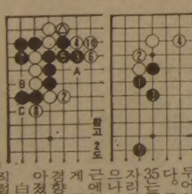
第13局第2譜 7~37 (각5시간·덤5집반)

白(7段) 徐奉洙〈2勝1敗〉
黑(4段) 姜勳〈2勝1敗〉



姜4단은 白8을 보더니 지체없이 黑9로 치받았다。 이리하여 제11국(盧永夏 7단·李相澈4단) 과 같은 대형정석이 여기서도 나타났는데 국후검토에서는 『黑37까지의 결과는 우변의 白◎표가 빛을 내어 黑이 탐탁치 않으니 黑9는 12자리를 젖히는 참고1도의 보통형이 나왔다』는 중론이었다。

원래 이같은 큰 밀어붙이기는 手數가 많기때문에 제대로 익혀둘 필요가 있다고 趙南哲8단은 말한다。『특히 白18、黑19、21의 수순이 긴요하며 黑은 좌하귀에 白돌이 있을 경우 33에 두어야한다。또 黑35는 간자리도 있으나 최근에는 둘게 두는 경향이 많아졌다』 白18로 직접 22에 꼬부리는 참고2도의 변화도 있다。이때 黑은 1로끊는것이 수순。白2로 뻗고 黑은 3에 호구하여 이하白10까지、黑은 실리를 차지하고 白은 외세를 쌓게된다。그리고 옛날에는 白10으로「A」에젖혀 黑「B」와 교환해두었지만 요즘와서는 뒷날 白「C」의 선수를 보고 손을빼게 되었다。 【一凡】

큰밀어붙이기의 手順

웨딩드레스

⊙웨딩·드레스 매매 또는 렌트.
⊙파티용등 스페샬 드레스 완비.
⊙꽃 어레인지먼트 및 사진등

◀영업시간▶
(월·금) 아침10시~저녁 8 시
(토) 아침10시~저녁 7 시

Eglinton
Millwood
Bayviw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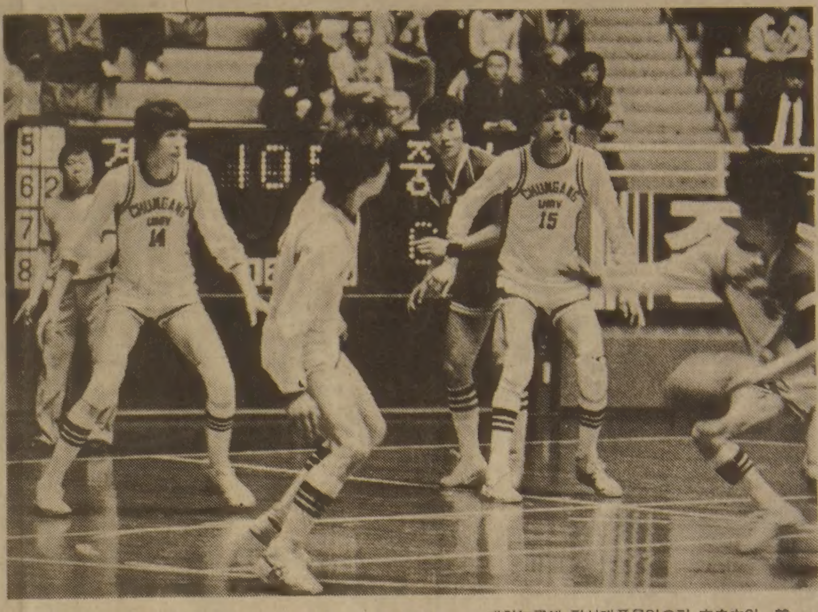
1503 Bayview Ave.
(베이뷰×밀우드)south of Eglinton
☎ 485-9419 488-0639
(MILLWOOD FLOWER SHOP) Mrs. 원

大學농구 "공포의 두長身"

"中央大돌풍" 몰고온 207cm韓基範 - 197cm金裕宅

한게임 15~20得點·리바운드 10개씩

他대학들 "對策이 없다"



◇明知高선후배 "손발도 척척" 대학농구에 장신태풍을일으킨 中央大의 韓基範(右·15번)과 金裕宅(14번)。25일 慶熙大와의 경기서도 대활약했다。

中央大의 장대 韓基範(2m7)과 金裕宅(1m97)이 대학농구에서 공포의 선수로 각광받고 있다。

대학선수중 가운데 최장신인 韓과 세번째로 키가큰 金은 춘계대학농구연맹전서 「中央大돌풍」을 몰고오는데 구심적인 역할을 하고 있다。 금년 2학년인 韓基範과 신입생 金裕宅은 사이좋게 明知高 선후배사이。

고등학교 3년동안 같이뛴 관계로 올해 金裕宅이 中大에 입학했지만 손발이 척척 맞는 플레이를 해내고 있다。

작년까지만 해도 韓基範은 스피드·지구력·민첩성등이 부족하여 센터로서 대성할수 있을지 농구전문가들은 의문을 품었었다。 韓도 볼핸들링이 좋지않아 외곽에서 골밑으로 연결해주는 볼을 잘 받아내지 못한데다 스피드가 부족하여 골밑슛으로 연결하는데 어려움을 겪었다。

『작년 韓基範을 센터에기용했을때 팀플레이에 마이너스 요소가 많았다。 이를 감수하며 韓을 계속 기용,플레이경험을 쌓게해주고 약점을 보완해 많은 발전을 가져오게 되었다』고 鄭奉燮감독은 말하고 있다。

韓에 비해 힘이 센 金裕宅은 키가 10cm 작지만 스피드와 볼핸들링 개인기가 韓보다 앞서있다。

또한 리바운드나 슛감각도 장신선수로서는 보기드문 재질을 가졌다는것이 전문가들의 평이다。

韓과 金을 더블 포스트로 세운 鄭奉燮감독은 「빠른金」과 「키가큰 韓」을 조화 있게 게임에 대처, 대학농구서 돌풍을 일으키고 있는데 中央大와 게임을 가진 타대학 관계자들은 두장신을 막을 대책이 없다고 괴로와하고 있다。

이번 대회들어 韓基範은 평균득점 15점、金裕宅은 25점 평균 리바운드는 두선수가 다같이 10개정도 잡아내고 있는데 金이 더 무서운 존재라고 대학팀 관계자들은 말하고 있다。

金은 골밑으로 이어주는볼을 잽싸게 잡아 골밑을 대시한은 폭이 일품이고 韓基範은 25일 慶熙大와의 대전서 이번대회 처음 덩크슛을 날리기도 했다。 慶熙大와의 대전서 金은 34득점·15리바운드, 韓은 22득점·14리바운드를 기록했다。

鄭奉燮감독은 『당장 쓰기는 金裕宅이 낫다。 金때문에 韓도 살고 韓의 신장을 이용해 金의 스피드있는 플레이가 돋보이게 된다。 두 선수는 서로 도우며 성장하고 있다』고 말한다。

현재까지 대학농구에서 2m7과 1m97의 장신이 포스트를 지킨 것은 中央大가 처음。 농구 관계자들은 中央大가 대학농구 정상에 오를 시기가 도래했다고 입을 모으고 있다。

韓基範이 불과 1년사이에 공포의 센터로 성장한 것을 보면 한국남자농구의 기둥구실을 충분히 해낼 수 있을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金裕宅은 센터보다는 포워드로 키우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것이 전문가들의 의견이다。【閔炳宅 기자】

中央大 3연승

대학농구 慶熙도 격파…延大와 공동선두

中央大는 25일 장충체육관서 진행된 춘계대학농구연맹전 결승리그 이틀째 경기에서 韓基範 金裕宅두장신이 慶熙大골밑을 무력하게 만들고 득점과 리바운드에서 종횡무진활약, 97—68로이겨 3연승을 올렸다。

延世大는 俞敏學이 고비마다 슛을터뜨려 대인방어로 악착같이 달려붙은 漢陽大를 79—69로 제압, 中央大와함께 공동선두를 달리고있다。

한편 高麗大는 國民大를 87—74로 물리쳐 결승리그서 첫승리를 올렸다。

◇제7일전적

연세대학(3승)	79	35-30	69	한양대학(2승1패)
		44-39		
중앙대학(3승)	97	47-28	68	경희대학(3패)
		50-40		
고려대학(1승2패)	87	41-38	74	국민대학(3패)
		46-36		

한국일보

實業야구 1차리그

浦鐵 드디어 頂上에

韓電에 大역전… 7승1패

浦鐵이 감독부재의 어려움을딛고 실업정상에올라섰다。25일 서울운동장에서 속행된 실업야구 1차리그 韓電과의 마지막 대결서 浦鐵은 6회초 4번 金聖鎬가 만루에서 주자일소의 2루타를 때리는등 타자를일순하며 맹공을퍼붓고 재역전에 성공, 7승1패로 우승을 차지했다。

대역전극은 6회말에 이루어졌다。이번 리그의 히어로 5번辛鉉碩의 타구를잡은 韓電 3루수孫瑛周가 1루에 악송구。 이어 보내기번트를 실패한 6번柳相浩가 투스트라이크후 노려친것이 좌익수앞에 떨어지는 깨끗한안타가되어 주자無死1·2루가되었다。

浦鐵은 찬스를 놓치지않고 8번金哲敏이 주자2명을 모두 거둬들이는 역전2루타를 때리고 1번 吳成珪는 흔들리기 시작한 韓電선발 尹秀奉으로부터 스트레이트·포볼을 얻어 걸어나갔다。 2번 金鍾起는 우전안타로 나가 3번 俞大成은 韓電구원투수 朴明善으로부터 포볼을 빼앗아 만루。

浦鐵은 4번 金聖鎬가 주자를 일소하는 좌월2루타를 때려 8—3으로 승부를 결정지었다。

◇11일전적

웅비(3승3패)	001	020	210	—	6
농협(1승4패)	100	001	210	—	5

◆홈런=李碩揆(8회·웅비)

섬무(3승4패)	100	021	000	—	4
한일은행(3승1무3패)	001	310	41×	—	10

◆홈런=盧承珍(3회) 李顯振(4회) 朴海成(8회·이상 한일은)

포철(7승1패)	100	016	200	—	10
한전(4승2패)	002	101	000	—	4

◆홈런=姜琪文(4회·한전) 吳成珪(7회·2점·포철)

구독신청 배달사고 533-2361

◇격렬한 공중전 浦鐵㊧과 住宅銀行이 격렬한 공중전을 벌이고있다。浦鐵이 승부킥 8—7로 신승, 결선2회전고개를 어렵게넘어섰다。

近代5種… 한국 19年만에 기지개

64년五輪 데뷔…來5월東京대회 4명파견

작년 聯盟창설…올體典부터 본격실시

姜錫仁·鄭敬薰 올림픽 出戰할듯

스포츠話題

◇미보급종목인 근대5종을 꾸준히 개척해나가고있는 姜錫仁。지난해 9월 연맹창설이후 선수발굴에 박차를 가하고있다。

19년만에 국제대회에 참가하는 종목이 있다。 근대5종경기。

지난해 9월 창설된 근대5종경기연맹은 대표선수 4명을 선발, 오는 5월 東京 아시아선수권대회에 출전할 꿈에 부풀어 있다。

64년 東京올림픽에 승마선수출신인 崔貴昇씨(현연맹전무이사)가 참가한 이래 19년만에 첫국제대회진출이다。

이번대회에는 LA올림픽 출전권이 걸려있어 막 걸음마를 시작한 한국근대5종의 가능성을 점쳐볼좋은 기회가 되고있다。

1912년 스톡홀름 5회올림픽부터 시작된 근대5종은 승마,펜싱,수영(300m),사격,육상(크로스·컨트리)등 5개종목으로몸의균형과 순발력 지구력등을 모두 필요로하는 전인스포츠이다。

한국에서는 비용부담때문에 선수를 양성하지 못하다가 연맹이 창설되면서 신인발굴에 착수, 1월에 12명으로 상비군을 구성했다。

6명은 84년올림픽에 대비한 선수들이고 6명은88 서울올림픽을 겨냥한 대학1、2년생들。

83년소년체전부터는 중등부에 근대2종경기(육상、수영)、전국체전 고등·대학부에 근대3종경기(사격추가)가 실시되므로 근대5종경기의 전망은 밝다。

근대5종 한국의 선두주자는 姜錫仁(26·해룡)。 수영선수 출신인 姜錫仁은 21일부터 4일간계속된 선발전에서 수영과 승마에서 뛰어난 실력을보여 종합점수 4、572점으로 우승했다。

국제대회서4천5백점을 따면 올림픽출전자격이 있으므로 현재로서는 姜錫仁과 2위 鄭敬薰(해룡·4、544점)이 LA올림픽출전이 가능하다。

국제대회에서는말(馬)의수준이 국내보다높기 때문에 승마 점수를 더욱 높일수 있을것이라는것이 崔貴昇씨의 설명。

世光高1년때 수영자유형 4백m와 1천5백m등에서 6連覇한 관록을 갖고있는 姜錫仁은 육상에서도 재질을 타고나 77년高麗大시절 교내 18km단축마라톤서 1위를 차지하는등 강한체력을 갖고 있다。

뒤늦게 익히기 시작한 펜싱、승마등 기술종목기량도 하루가 다르게 성장, 펜싱 전국대회에서 기성선수들과 겨룰정도이고 사격, 승마 단일종목경기에 참가할 예정이다。

『5종목을 한꺼번에 하려니 힘든점이 많아요』 새벽에 육상훈련을 끝낸후 상오9시에 泰陵에서 사격, 하오1시 뚝섬 승마공원에서 승마지도를 받으며 하오3시 잠실에서 수영, 7시반부터는 鍾路YMCA로가서 펜싱연습을 한다。

아직 泰陵선수촌에 들어가지 못하고 하루종일 서울시내를 돌아다니는 신세지만 그래도 근대5종의선구자란 사명감에 자부심과 의욕이 높다。

『84년올림픽서 메달은 힘들더라도 상위권에 진출할수 있도록 姜錫仁을 키워보겠다』는게 근대5종 관계자들의 꿈이다。【俞興根기자】

땅끝에서 오다 <17>

金成一 作 宋龍 畵

한권의 책 ⑧

『염려마세요。 그런 부탁 쯤은 얼마든지 괜찮으니까요。 부쵸(部長) 이름이 뭐죠?』

『아마 [illegible] 명찰이나 스티커가 붙어있을 거예요。 영어로 S. W. Lee 가 아니면 이세원…요노나까(세상)의 요(世) 도오이(먼)의 엔(遠)이에요』

『J·L 404 파리발이라고 그랬죠?』

『네, 그렇습니다。 후쿠시마상의 기억력은 역시 상당하시군요』

『잠깐만 기다리세요』

후쿠시마 히데오는 검사대를 [illegible]해놓고 다른 직원에게 다가가서 뭔가 소곤거리고 있었다。

(…이 세원은 정말 비행기를 타지 않은 것일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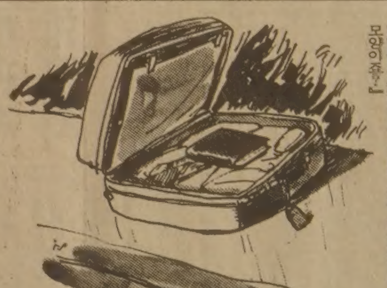
그렇다면 도대체 어찌된 일이란 말인가?

리지볼산 입사이래로, 아니 국민학교 입학하던날 처음 준호와 만났을 때부터 지금까지 실수라고는 한번도 없던, 지나치도록 치밀한 이 세원이었다。

(부지런한 척하고 전 세계가 다 쉬고 있는 오늘같은 날 사람을 귀찮게 하니 이런 일이 생기지 않는가)

후쿠시마 모습이 다시 나타났다。 그는 밤색의 수트케이스 하나를 놓고 있었다。 그는 수트케이스를검사대 위에 올려놓으면서 말했다。

『역시 찾아가는 사람이 없어 그냥 콘베어를 타고 빙빙돌고 있더군요。 부쵸는 정말 비행기를 못 탄 모양이죠?』



『글쎄, 아주 멀쩡하다니까요』

손잡이쪽에 가죽제의 명찰이 달려 있었고 S. W. Lee라는 이니셜이 분명히 적혀있었다。 언제보아도 차분하고 야무진 이세원의 필적이었다。

『이부장의 짐이 틀림없군요。 그런데…』

『…왜 그러시죠?』

『혹시…브리프케이스같은것은 없었나요?』

그렇게 말하면서 준호는 다시한번 긴장하고 있었다。 그토록 중요한 서류라면 휴대용 손가방에 넣었을 것이지 수트케이스에 넣었을리가 없기때문이었다。

『이것뿐이에요。 그렇지않아도 또 다른것이 없을까하고 둘러보았거든요。 하여간…어차피 이가방을 가져가시겠다면 통관검사는해야죠。 혹시 밀수품이 들었을지도 모르니까요』

『아마 마약이 한덩어리 들었을지도 모릅니다。 그 부장은 매우 엉큼한 사람이니까요』

『하야시상은 정말 사람을 잘 웃기시는군요』

마침 수트케이스는 잠겨져 있지않았다。 그것이 더욱 준호를 불안하게 하였다。 치밀한 이세원이 중요한 서류가 든 가방을 잠그지 않았을 리가 없기 때문이었다。 수트케이스가 열리고있었다。 준호는 가슴을 두근거리며 그것을 들여다보고 있었다。 서류도 서류였지만, 줄곧 그를 앞질러온 라이벌 이세원의 비밀을 처음 여는것 같아 그는 조금 흥분하고 있었던 것이다。 가방의 뚜껑이 열렸을 때… 준호의 눈에 제일먼저 띈것은 낡은 가죽의 표지로 덮인 한 권의 책이었다。

張吉山 <1700>

黃晳暎 作 崔然石 畵

第四部 逆謀 第一章 彌勒 (160)

『그러면 사흘 뒤에 어떠한가?』

『무슨 일인데?』

『자네 사촌 언니를 만나봐야지』

정만일이가 웃는 얼굴로 대답하였다。

『뭐 내가 없어도 청송가서 정호명이네를 찾으면 다 안다네。 내가 보냈다면 반색을 할것이고…』

『우리가 뭐 하룻밤 유숙을 청하러 들른다나 그네인가。 마음을 통하자는 것인데 말문도 열리지않는 법일세。 자네가 다리를 놓아야지』

『까짓 그러면 낼 저녁에 가세나』

『추수는 어떠하고?』

『모레 중화참까지 돌아오면 되겠지。 그대신 우리 집서 참을 내기로하면 두레에서두 별 불만들은 없겠지』

세 사람은 저녁 늦게까지 얘기하는 중에 각자년의 접제와 살주계 얘기가 나오게되어 식동이는 여러가지 사건들을 설명하였다。 그는 특히 삭지니의얘기도 해주었고, 최어기를맞히려고 그의 집 앞에서 매복하던 얘기도 해주었으며, 한양 여관의 집을 들이치던 얘기들을 하였다。 정만일은 신이나서 연신그래서, 를 연발하였고 삭지니들의 계원들이 참수되던 대목이며 그의 형수가 자진하던 대목에서는 눈물을 흘리며 비분하였던 것이다。

이튿날 정원태와 김시동은 대탄으로 일단 돌아갔다가 저녁에 청송 정호명의 집에서 정만일과 만나기로 하였다。 시내비골로 들어가는길에 염근산 아랫녘 칠성암에 찾아가니 여환스님과 계화가 반가이 맞이하였다。 식동이는 대충 이제까지의 진행과정을 말하였고, 여환은 벌써 흥성산 장군사의 대법회때에는 장포사람들과 연천 사람들이 많이 참석하리라는것을 알고 있었다。

『이번에 마침 황거사의 작은조카로 안협사는 이가 우리 도에 들게 되었는데, 이정명(李井明)이라고…해서에서 오는 소식은 그쪽으로 기별해주기로 되었소』

『이쪽 읍담 사는 원명이 아저씨 아우 말인가요?』

시동이도 그의 형 원명은 활회와 함께 만난 적이 있어서 말하니, 여환은 그렇다고 고개를 끄떡였다。

『전거사와는 서로 아는 사이인가요?』

『아직 모르오。 나중에 차차 알게 되겠지。 잠군사 괴뢰배들은 진작부터 해서 구월산 토포 때에 쫓겨난 이들이라, 해서로부터의 연락을 직접 받는 것이 합당하지 않소。 그보다는 안협이 해서와 접하여 있고 평산 신계와 지척이니 이정명의 집이 해서에서 오는 손이 들기에 맞춤하겠지요。 전 삼좌는 기별이 있을제 그 집으로 찾아가 해서 오박수의연락이나 큰스님의 하달을 받으면 되겠지』

정원태가 여환에게 물었다。

『황거사는 삼각산에서 내려왔읍니까?』

『예, 진작에 내려왔지요。 오늘 이원명 향도의 집에 들렀다가 이리로온다고 했읍니다』

『아, 그러면 잘됐군요。 황거사가오면 저희는 오늘저녁에 청송 면주인집에 있겠으니 꼭 들러 달라고 전해 주십시오』

『아, 그 소요산 아랫녘 삼다는 장사말이군요』

『그는 우리계에 필요한 사람이 아닌가 합니다』

여환은 삼깐 고개를 숙이고 있더니 내키지 않는 듯이 말하였다。

『필요하겠지요…마는서두르면 안됩니다。 우선 무엇보다도 충실한 믿음을 지닌 향도가 되어야만 합니다』

MARVIN STARR

〈취급종류〉

▲소형차: ACADIAN, PHOENIX SKY LARK, J2000

▲중형차: LEMANS, GRAND·PRIX CENTURY, A6000, FIRE·BIRD, RIVIERA

▲대형차: 스테이션웨곤, PARISIENNE, LESABRE, ELECTRA, PARK·AVENUE, 벤트럭, USED·CAR

※여러분에게 가장 적절한 차를 구입하실 수 있도록 도와드립니다.

조 의 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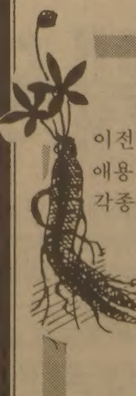
☎ 264－2311(B)
439－5030(R)

3132 Eglinton Ave. E. Markham×Eglinton

Auto Mechanic License, Auto Body Licence 소유
Chassis Frame, Front end Alingnment Certificate 소유

〈국제한약상사〉

이 전 개 업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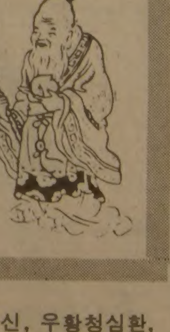


금번 쥬이시 시장안에 국제한약상사(전 안강용한약방)를 설립하고, 이전 인사말씀을 드립니다. 과거와 같이 계속 지도편달해 주시고 많은 애용 있으시면 감사하겠읍니다. 특히 작년 1달간 사업관계로 중공을 방문, 각종 한약재를 직수입하게 되었음을 알려 드립니다.

최 호 권 배상

— 각종 한약재 도산매(도매,소매) 전문점
- 원로 중국 한의사 초빙코 봉사.

〈개업일자〉 2월23일(수)부터
〈장 소〉 55 KENSINGTON AVE. (쥬이시 시장내 시영파킹장앞)
〈전 화〉 (B) 593－5238 (R) 759－4012
〈영업시간〉 월~토 : 오전 10시~오후 8시



★SPECIAL 각종 보약재 10－15% 할인
진품웅담, 길림산 녹용, 해구신, 호구신, 우황청심환, 사향, 각종 보약재등…。

MOZART MUSIC CENTRE

MARKHAM PLACE
Don Mills Rd. & Steeles Ave.
881-8230

HILLCREST MALL
9350 Yonge Street
883-9407

LUCAS YUN 윤 호 섭

거구장

결혼·회갑·생일잔치·동창회및 각종 피로연 예약환영

□가수·신현희
□권순근과 ADD·K악단
월~목 오후2시－새벽1시
금·토 오후2시－새벽2시

5 BETHRIDGE RD. ETOBICOKE
☎ 742 1618

★카텐을 원하십니까?

안심하고 믿고 찾는 럭키 Drapery

◉품질 다양
◉저렴한 가격
◉성실한 써비스

414½ Dixie Rd.(딕시 × 버남돌프)
전화 : 625-0698 최 원 보

한국 CLASSIFIED

한인업소 전화번호는 한국안내광고에서

빅·세븐 선물쎈타

◉중국산·한약·직수입
◉인삼·녹용 :
◉각종 귀국용 선물용품등.

678 Bloor St. W. 전화 : 533-7966
대표 : 김 영 철

T.V 수리는 431-0102
전화 : 431-0102 Mr. 박

소 독

ZAP SUREKILLER 전화: 368-9018, 366-0960
바퀴벌레 개미등 각종벌레 100% 효과
한국식품점 또는 온타리오 전역 공급, 주문배수

광고문의 533-2361

시설및수리

Kim's Installation & Repair 페인트, 각종유리 일체를 취급. 상·하수도, 욕탕 각종타일 시멘트공사 전기시설및 수리. 전화: 425-8585, 535-4441(R) Mr. 김

"집수리·신전축·복수일"합니다. 빈가게및 건물 주로 변경, 지하실 전문, 진열장 카운터 제작, 스팀 셀빙, 페인팅, 타일, 세멘트일등, 설계, 실내장식, 신축, 상담, 허가시공. ◉전화 : 669-5784(Mr. 심)

KW Electrical Services Met. Lic. E-1267 Miss. Lic. 3312
◉주택, 상점, 공장의 전기시설, 보수, 증설 일체
전화: 791-1973 지경원

KIMBO ELECTRIC CO. MET. LICENSE E-725
전기시설 · 보수 · 가게신설 · 용량증설등 전기일 일절
전화: (B) 245-5544 (PAGING) 2790, (R) 255-2161 김 부 원

▲목공소(FINE WOOD WORK) : 캐쉬 카운터, 각종 진열장및 가정용 책장등 가구를 주문 제작합니다.
전화: 676-1173(B), 251-2966(R) 조덕근

CUSTOM WORK.
수리-가게, 집, 캐비넷. License No. B-2532
전화: 653-3105 Charles

식 당

아 리 랑 식 당 중화요리및 한식전문
영업시간 : 월~일요일까지=낮12시~새벽1시까지
716 BLOOR ST. W. TORONTO 전화: 532-2727

거 구 장
5 BETHRIDGE RD. 전화: 742-1618

오리엔탈팔레스·뉴서울식당
529 BLOOR ST. W. TOR.
예약 : 533-3545~6

코 리 아 하 우 스
666 BLOOR ST. W.
전화: 536-8666

한 국 관 628 BLOOR ST. W. 전화: 536-0290, 531-0277
냉면, 곰탕, 갈비및 중화요리 전문.
OPEN 11 : 00AM~1 : 00AM 대소연 200석 완비

클링톤하우스 각종모임(동창회·계등)을 위한 조용한 분위기 별실마련. 간단한 중국요리도
693 Bloor St. W 취급(저렴한 가격 봉사) 전화: 535-9541

호 심 (Korean & Japanese Restaurant)
1st Canadian Place Concourse Level in the Food Market
100 King St. at Bay(P.O.Box 329) Tel: 368-0686

Rose Garden(중국집)각종 파티, 회의실 마련.
홍콩식 중국요리전문, 각종술 취급.
538 St.Clair Ave. W.(Bathurst) 전화: 656-0456, 654-6609

서 울 집 고향의 맛, 한식·중국요리, 각종국수 전문
615 Bloor St. W. 전화 : 532-0602

남 강(구 그라나다) 음식점
피로연·회갑·동창회·각종모임·계(예약환영) 한식·일식
920 Yonge St. 전화 : 923-3060

내고향통닭집
고향의 미각, 통닭·김밥·우동·곰탕·만두·빈대떡등…
658½ Bloor St. W. Tor. 전화 : 537-0432

KOTO 일본음식점 ● 웨이트레스 구함.
영업시간: 수·목-5:30pm~11pm 금·토-5:30pm~12pm
5304 Yonge St.(at Finch) 전화: 221-1621 월·화는 휴업.

마쵸레스토랑(월-토: 4pm-1am, 일: 4pm-11pm)
각종 한식·중국식·양식 취급, 주류일체 취급.
4035 Gordon Baker Rd.(Victoria & Steeles-1 Block South) 498-1300

동궁식당(Oriental Castle)
전통적인 광동식 중화요리, 연회석 완비.
1416 Victoria Pk. Ave. 전화 : 757-6334 Mr. 최기주

Valley Village (금천루)
사천요리 전문, 단체손님 환영(280석)
전화 491-4058 신영식, 하주용

AKASIA HOUSE(아까시아 식당) KYOTO
1067 Midland Ave. Scarboro. (Oriole Plazza) 일식전문, 한식
전화 : 755-3010(B) 267-4383(R) Mrs. 리(곽순자)

피자(RESTAURANT & TAVERN)
▲피자 $50~$100주문-10% 할인/$100이상-15% 할인.
5310 Yonge St. 전화 : 226-1146 Mr. 정

식 품 점

삼복식품
•불고기, 갈비, 밑반찬, 김치등 맛이 최고인 삼복식품!•
★일요일 정상 영업(오전 11시~오후 8시까지)함.
★교회, 동창회, 결혼, 회갑, 피로연등 단체구입손님에게 특별할인봉사.
★품질과 신용이 최고인 삼복식품을 많이 애용해 주세요.
전화 : 743-8270 2437 Finch Ave. W. Weston

제일식품
▲저렴한 가격 ▲품질보장
▲배달함 ▲파킹장준비
712 BLOOR ST. W.
전화 : 532-1054 오 석환

서 울 식 품(동부)
◉친절한 써비스, ◉저렴한 가격.
367 PITFIELD RD. 전화 : 291-8317

서울식품(서부)
◉친절한 써비스 ◉저렴한 가격 ◉김치전문(도매가격)
1391 Weston Rd. 전화: 243-9544

한인식품
▲각종 한국식품 취급, ▲달갈·감자등 도매, 배달.
15 West Dean Pk. Dr.(East Mall Plaza) 622-2843 손덕수

경보 장치

경보장치.
가게, 주택을 위한 각종 경보장치·도난방지기등 설치.
전화: 924-7696 Mr. 정

액 자

PICTURE FRAME WAREHOUSE(각종액자)
32A REXDALE BLVD. REXDALE
전화 : 746-2120 조 혜 숙 조 성 호

Kim's Art Gallery 액자, 동양가구, 유화, 동양화 전문.
1286 Weston Rd.(에그린톤 × 웨스톤)
전화 : (B)243-0233 (R)247-3226 김석환

SUNKIM INDUSTRY LTD. 액자공장-그림재료.
2446 Cawthra Rd. unit 4-Block 4 Miss. Ont.
전화 : (B)272-0068 김승수

요한화랑 · 기독교회관
각종서적, 액자및 성화·초상화.
549 Bloor St. W. 전화: 532-7909

악 기 점

피아노 수리·조율·재생·운반.
중고 피아노 팝니다.
PIANO. TECHNICIAN
전화 : 636-1430(R), 665-8233(B)
주소 : 855 ALNESS ST. UNIT 13 이 상 철

양 장 점

샘 터 의 상 실
숙녀복 · 파티드레스 · 웨딩드레스 · 단체주문환영
606 Bloor St. W. 전화 : 535-4441 디자이너 MR. 김

에어콘 히팅 냉장고

에어콘·냉동·전기·히팅·세탁기
시설 · 판매 · 수리
정확한 진단 · 예방및 각종 고장 정비
정확한 정비 · 캐나다 최상급 자격증 소지
-24 HOUR SERVICE-
전화 : 366-5655, 531-5440 이 황 영

PALMER'S
에어콘, 전기, 개스히팅, 워킹쿨러, 아이스크림 후리저
NEW OPEN STORE SPECIAL SERVICE
시설 · 판매 · 수리
전화 : 494-0512(B) 493-9945(R) 김 봉 균

CENTURY
(냉동기 시설및 수리)
전화 : 221-5441 Mr. Lee

KIM 냉장고 · 에어콘
시설 · 수리 · 판매
전화 : 749-3178 김 진 환

Richvale ◉Heating, Cooling & Electrical
◉24시간 Service.
전화 : 752-0404 Mr. 오

여 행 사

신 세 계 여 행 사
712 BLOOR ST. W.
전화 : 536-2155 김 창 범

서 울 여 행 사
631A BLOOR ST. W.
전화 : 535-6004, 535-8801 최 동 주

제 일 여 행 사
649A BLOOR ST. W.(김종조종합보험 옆)
전화 : 535-2377 유 지 원, 신 용 목

북 미 여 행 사
376 QUEEN ST. E.
전화 : 368-9018, 366-0960 임 태 호

세 방 관 광 여 행 사
720 SPADINA AVE. SUIT. 104
전화 : 928-3335(B), 532-9581(R), 유승민
유문원

운 동 구 점

브랜든운동구점 (종합운동구점)
각종단체 유니폼및 트로피, 골프, 스키장비 일체 취급
337 BLOOR ST. W. 전화 : 598-3732 이건영

MUNAMI TROPHY & SPORT
각종단체 유니폼, 트로피, 기념타올, 각종골프채등 취급
880 Ellesmere Rd. Scarboro. 전화 : 298-3584 이기훈

페인트·벽지

페인트 또는 벽지때문에 걱정하십니까? 안심하시고 저희에게 맡겨보십시요. 저렴한 가격과 우수한 기술로 성심껏 모시겠읍니다. 전화상담도 환영 전화 : 731-4204 (Mr. 신)

안 경 점

불루어 안경점(구진모)
635 Bloor St. W. 전화: 531-2236

운 전 학 교

아스트라운전학교
761 JANE ST.
전화 : 741-6099(B) 743-3377 Mr. Eastman

Agincourt 운전학교(토론토 동쪽) 한국교포 특별 우대. 18년간 운전교육 경험으로 성실히 모십니다. 스카보로 지역은 Ride 제공함. 전화 : 291-8304(블라도)

UNITED DRIVING SCHOOL 특별할인 수업료 $159
온타리오 안전 수료증을 발부합니다. ◉10번의 드라이빙수업 ◉25시간의 교실수업 ◉본 수업을 끝낸후 41%까지 보험료할인 혜택을 받을수 있음 ◉인컴텍스에서 면제할수 있음. ★이광고를 가져오면 $20할인해드림. 시간당 $10로 특별운전교습 할수 있음 2387 Eglinton Ave.E.Unit 2
전화 : 431-2596

A-1 Safety Driving School
자상하게 성의껏 잘지도함, 어디든 가서 Pick-Up함.
1레슨: $11, Road 테스트: $22, 전화 : 763-3593, 766-0860

인 벤 토 리

INVENTORY - 인벤토리 -
1)STORE인수, 인계 INVENTORY
2)STORE 정기조사 INVENTORY
3)STORE 납세대비
★주야 INVENTORY
TORONTO RETAILERS INVENTORY CO.
전화 : 259-5822·255-8301(B) 252-2963(R) Mr. 오

INVENTORY - 인벤토리 -
주야불문(공휴일 무관)
전화 : (B) Anytime 536-6250 호 세 환

인 쇄

비둘기사진식자인쇄소
87 Apache Trail Willowdale, Ont.
전화 : 493-8894 윤 종 대

칠성인쇄소, 칠성광고
1559A Eglinton W. TOR. ONT. M6E 2G9
전화 : (B)789-7351, 789-7352 대표 : 이 인 용

스피디인쇄소
619 BLOOR ST. W.
전화 : 535-3520 곽 호 중

ADVENT 프린팅
6028 Yonge St. (영×휜치 북쪽)
전화 : B)221-3737, R)224-1133 임 운 철

자동차매매

GRANT BROWN G.M. (폰티악, 뷰익, 캐딜락)
1575 Weston Rd.
전화 : 247 - 7161 이 한 구

MARVIN STARR G.M.(폰티악·뷰익)
3132 Eglinton Av. E. Scarboro.
전화 : 264-2311 조 의 문

North York Chev-Olds Ltd.
○. 시보레, 올스모빌, Van및 각종 중고차(lease도 취급)
○. 가장 오랜 경험의 쎄일즈맨
○. 철저한 After-Service
7200 Yonge St. (영 × 스틸)
전화 : (B) 881-5000 (R) 221-2979 김 병권

자동차수리

North York 오토바디
◉20년 경력, ◉24시간 토잉써비스
◉완전수리, 페인팅, ◉수리중 차량 대여.
◉보험관계 일체 처리.
215 Toryork Dr.(웨스톤×휜치 북쪽)
전화: (B)749-0555, (R)881-4053 송 대 헌

MASTER AUTO BODY
사고차량 24시간 토잉, 사고시 보험관계 처리
수리중 차대여, 페인팅 (Oven Bake Finish)
교포특별대우, 95 Portland St. Etobicoke.
전화 : 255-2111(B), 828-5001(R) 전 기 덕

ANCHOR AUTO BODY
▲완전한 차체수리 ▲무료견적 ▲페인팅
▲토잉 써비스 ▲Rust Proofing
846 RICHMOND ST. W. TOR.
전화: (B) 862-1433 (R) 493-8792 송 창 섭

ALLEN AUTO SERVICE
▲GENERAL AUTO SERVICE ▲TUNE-UP
▲BRAKE JOB ▲TIRE ▲TOWING SERVICE
▲ENGINE OVERHAUL ▲ELECTRIC PROBLEM
▲AUTOMATIC TRANSMISSION ▲OIL CHANGE
주소: 521 KEELE ST. TOR. 전화: 762-3247 정 용 태

자동차 출장수리 (오전및 주말)
INTERPROVINCIAL LICENCE MECHANIC
전화: 749-9749 Mr. 박

CENTRAL AUTO SERVICE 길 창 세
▲Tune up ▲Safty Inspection Certify ▲Professional Brake Service.
481 Dupont St. 532-3946

ROGERS GARAGE (자동차 수리일체)
20 Rogers Rd. 변 달 원
전화: 651-9324(B), 226-5430(R)

L & K AUTO COLLISION
주소 : 346 MUNSTER AVE.(BLOOR & 키플링)
전화 : B) 231-6951, R) 742-5406 오 세 호

CITY WIDE RADIATOR SERVICE 김 용 환
라지에타 - 개스탱크·히터·워터펌프 수리
전화 : 245-1978(B), 248-6032(R)

FIRST AUTO SERVICE
1521 QUEEN ST. W. 최 이 탁, 김 한 호
전화: (B) 532-0200 (R)537-5830

E & J 오토바디 숍.(B)766-3122 (R)439-6548
-토잉무료. -각종 보험일 처리. -철저한 신용.
104 Osler St.(Dupont×Dundas. W.) 이영두

한국안내광고는 이민생활의 각종 정보를 제공합니다.
저의 안내광고를 많이 이용하세요.
★한국일보 안내광고 : 533-2361

장 의 사

Toronto Memorial Funeral Home
721 Bloor St. W.(at 크리스티 써브웨이)
전화 : 536-6250 호세환, 530-1222 Mr. 왕

장의사(R.S.Kane Funeral Directors)
모든 장의관계 일체 취급
4812 Yonge St.E.(세파드써브웨이) 전화: 221-1159

카펫 · 카텐

싸다고 소문난 가나안 카텐·카페트, 브라인드
2338 LAKESHORE BLVD. W. 20%~30% OFF
(B)252-4857, (R)252-6602 Mr. 유(분납 가능)

카페트 크리닝 : 카페트·소파·쉐어·자동차시트
최신 스팀샴푸 크리닝
전화 : 439-6277 Mr.박

Stewarts 카페엣 Land(70%까지 세일중)
무료설치, 스폰지 무료, 무료배달.
1200 Kennedy Rd. Scarboro(Tel. 757-2811)

태 권 도

손명수 태권 · 합기도장 사범 : 손명수
2188 BLOOR ST. W. (At Runnymede 써브웨이)
전화 : 763-1155

하 드 웨 어

Bloor & Bathurst Hardware
전화 : 531-6183 변 의섭

한 방 원

동양한약상사
20여년의 경험과 연구로 귀하의 문의에 응하겠읍니다.
정확한 진맥, 한방처방조제및 치료상담, 녹용, 웅담, 인삼, 우황청심환, 전자침, 지압치료, 자외선치료, 적외선치료.
온타리오 면허소유 함병섭 M.C.I.C. R.M.
◉Downtown Office: (416)537-6685 8am~6:30pm
621 Bloor St. W. 한국관 맞은편 Toronto
◉Willowdale Office: (416)222-9485 7pm~10pm
244 Finch Ave. E.(Yonge St.에서 Bayview 근처)
VISA 또는 MASTER CHARGE 환영

하르빈한약상사
20년동안 침구를 연구함
20년간 한의사 경험(중국의사 자격증 소유)
20년간 하르빈한의대학교수
중국본토에서 한약 직수입 정확한 진단과 처방
(사향, 경명, 주사, 우황, 진주, 웅담, 인삼, 녹용등)
643A BLOOR ST. W. (신용조합 옆)
전화 : (B)536-6854, (R)921-3382 ·서 춘 봉

보광한약방 〈총계 김남집〉
임상경력 30여년, 사암오행 침구전공
특히 만성질환, 상담환영, 보약 첩약 특선정제
627 Bloor St. W. Ste #202(외환은행 2층 한국관앞)
전화 B)(416)588-1984 (10:00a.m.-8:00p.m.)
92 Brantwood Dr. Scar. (R)(416)439-6717

아세아한약상사 (645 Bloor St. W.)
진품 웅담·녹용·인삼·우황·사향· 산삼취급
전화 : (B)530-0522, 530-4900, 968-3586(R)

김명종한약방
2433 Finch Ave. W. #411
전화 : 745-2058

경희한방원 (진료시간: 월-금 6pm-10pm, 토,일 10am-5pm)
경희의대 한의과 졸업, 한의사 면허증 소지.
10 FOLCROFT AVE. SCAR. (Kennedy×Kingston) 266-1386 정세 철

회계사무소

K.G.S.Tax Accounting
과거 수년간 카나다정부 세무감사원으로 근무한 경력을 갖고 회계업무와 세무감사에 대한 업무를 봐드립니다.
◉사무실 : 1454 Dundas St. E. Suite 110 Mississ.
◉전화 : 273-7300 공인회계사 이명세

김인규회계사무소 (IN KYU KIM R.I.A.)
501 Yonge St. #207. Toronto
전화 : 960-5736(B), 844-0178(R)

정필주회계사무소
Tax Return, Tax Planning
4750 Jane St. Suite. 608 전화 : 661-1819

최태권종합회계사무소(ACCOUNTING & TAX)
개인세무및 보고서작성, 사업회계및 장부정리
637A BLOOR W. 전화 : 533-7573(B)

김명숙 회계사무소
627 Bloor St. W. #302
외환은행 블루아지점 3층 534-3760

차상범회계사무소(Cha's Accounting Service)
3305 Lakeshore Blvd. W. Toronto. Ont. M8W 1M9
전화 : (B)(416)255-8301, 259-5822 (R)(519)653-3329

공인회계사 이경복
CERTIFIED GENERAL ACCOUNTANT
3416 Dundas St. W. #206. Tor. 전화 : 766-5639

이영철 회계사 M.B.A., R.I.A.
ACCOUNTANT & CONSULTANT
344 Bloor St. W. #304 전화: 921-1294

이명윤회계사무소(스카보로지역)
44 Gil Roy Dr. Scarboro(Kennedy & Ellesmere)
전화 : 752-9332(R) 오후5시반 이후

파실 물건이 있으시거나 교환하시고 싶은 물건이 있으시면 저희 안내광고를 이용해 보세요.
그 효과에 깜짝 놀라실 것입니다.

최대의 발행부수와 최대의 광고효과를 자랑하는 캐나다 생활의 동반자, 정상의 신문, 한국일보 !

아세아 한약방
◉ 특수한약처방및 침술, 각종보약, 각종병약
◉ 물리치료(식이요법, 단식요법, 무료상담)
◉ 무병장수의 비법은 한약과 건강식품으로
◉ 영업시간 : 월-토: 오전 10시 - 오후 8시
◉ 편리한 자동 전자약탕기 보급.
645 Bloor St. W. 530-4900(B)
전화 : 968-3586(R), 530-0522(B).

한국 CLASSIFIED

한인업소 전화번호는 한국안내광고에서

RUOFF
다이아몬드·각종보석
Wholesale 가격 !
◉각종 보석 디자인
◉Custom 디자인
◉보석 수리전문
50% OFF
345 Bloor St. E. Toronto
(Ent. 79 Huntley) 전화 : 922-8350

구 인

경험있는 지렁이 잡으실 분 구함
다운타운 지역 사시는 분 환영
전화: 533-7759 Mr. 박

30대 애기없는 서양부부가 한국 애기를 입양하고 싶어함.
애기가 어릴수록 좋고 애기를 사랑함.
전화 : 533-0374 Jeri Vrieze

그로서리 가게 메니저 구함.
스타은 보증금 원함. 주매상 : $6,000. 부부운영 원함.
전화 : 439-9531 (오전9시~12시에만 본인 있음)

경험 있는 여자 풀타임 캐쉬어 구함
다운타운지역 925-0339

재봉사 구함.
재봉사 풀타임(경험) Piece work $4.50~$5.00
전화 : 368-2819

도너스 가게에서 일하실분 구함.
풀타임이나 파트타임.
전화 : 861-1521(B), 222-3877(R)

입주하셔서 가사와 아기 돌볼 가정부 구함.
457-9570

파트타임 스토아 헬퍼 구함.
전화 : 488-1634

풀타임 웨이트레스와 주방헬퍼 급구
전화 : 536-0290

일본요리사 및 남자주방헬퍼 구함
전화: (B)755-3010

출퇴근하시면서 2개월된 아기 봐주실분 구함.
Weston Rd×Lawrence Ave. W. 지역
전화 : 245-8765 Mrs. 정

화장품 쎄일즈 하실분 구함.
연간 4억달러 이상의 화장용류 수출실적을 갖고 있는 일본공사(Japanese Corporation)는 캐나다 시장 확장의 일환으로 1층 점포를 마련하고 쎄일즈하실 분을 구합니다.
화장품 계통으로 흥미나 장래를 꾸미고 싶으신 분 연락하세요. 좋은 대우.
★인터뷰 희망자는 전화 : 364-8932 Carol
NOEVIR EMPLOYMENT SERVICE

캐네디안 식당에 주방헬퍼 구함.
전화 : 621-3731 (Mr. 김) Etobicoke지역

일본음식점 웨이트레스 급구
풀타임 또는 파트타임, 221 Ellesmere Rd.(Warden 서쪽)
전화 : 441-2211 Hamamoto Japanese Restaurant

경험있는 커피숍 카운터 헬퍼구함.
전화 : 438-0403 Mrs. 숙

일본음식점 풀타임 웨이트레스 구함.
4 Avenue Rd. (Park Plaza Hotel)
전화: 960-9035, Katsura Japanese Restaurant

스토아 여자 헬퍼구함
18세-24세 사이. 무경험자 무방. 다운타운 지역
전화 : 463-1664

살림과 가게일 거들어주실 중년 아주머니 구함.
입주 또는 출퇴근(입주시 독방드림) Steeles×Dufferin
전화: 669-5301 (저녁 6시 이후)

한국안내광고는 이민생활의 각종 정보를 제공합니다. 저의 안내광고를 많이 이용하세요. 1주에 $15로 귀하가 원하시는 바를 찾으실수 있읍니다.
한국일보 안내광고 : 533-2361

한국기관·해외지사

총영사관	598-4608
무역진흥공사	977-8784
외환은행	364-2890
외환은행 Bloor지점	533-8593
한일은행	865-0456
조흥은행	363-3448
KAL	862-8250
현대자동차	477-0202

교민단체

한인회	755-9288
노년회	755-8079
실업인협회	533-7923
Y.M.C.A.	536-1166
코리아타운번영회	535-2091
동우회	261-2917
호남향우회	677-1888
캐나다체육회	248-8846
한인신용조합	533-9387
천주교신용조합	363-0097
한인태권도협회	630-3005
상공인협회	444-3716
이민사자료연구실(한국일보사내)	533-2361
영남향우회	249-6830
송공문화협회	444-3658
온타리오한인맹인후원회	593-8943

가 구 점

Ecosys Furniture
• 고급가구 전문 • 저렴한 가격 • 신용보장
21 Vaughan Rd. (1440 Bathurst St.)
전화 : 657-1785 (김 만 구)

모드가구점 (MOD ADDITIONS FURNISHINGS)
2300 Yonge St. Tor.(Yonge & Eglinton Centre) 고급가구전문
전화 : B)486-0397 홍애연 (9:30am~9:00pm)

매 매

비데오 아케이트 매매
수십가지의 중고 Pineball과 비데오 머신
전화 : 447-6955 Mr. Lee

가정사정상 그로서리 가게를 팔고자함
주매상 $4,000 956 Brimorton Dr. Scarboro.

다운타운에 있는 레스토랑 매매(Bar도 겸해있음)
2,000 Sq.ft. Church St.(King & Queen)
전화 : 368-1086 (월-금: 11:00am~10:00pm) Mr. Cameron

맥스 프랜차이스 매매
오샤와 지역
전화: 1-723-8632

Chicken & Pizza 레스토랑 매매.
주매상 $2,000. 좋은조건에 양도함.
아스킹 $20,000+장비 몰게지. George Town.
전화 : 1-873-1603 Mr. 최

아파트먼트 달린 버라이어티 스토아 빌딩전체 매매
주매상 : $4,000+비데오(월 $500). Open 6개월
경쟁 없음. 전화 : 763-6723

잘 손질된 야마하피아노 팝니다.
전화 : 652-0370 774 St.Clair Ave. W.

▲Bloor St. 인베스먼트 $179,900
▲Yonge st. 에 위치한 Fruit 스토아
주매상 $5,000. 렌트 $1,400. 가격 $60,000
▲Yonge St. 인베스트 빌딩. $269,900
전화 : 535-1170 박문희(Clara Park)
Royal Trust 4430 Bathurst St.

좋은 투자의 기회! 13개 배출러. 리노베이트된 벽돌건물 Semi. 다운타운 U of T. 아파트 있는 빌딩. 가구있게 지어졌음 파킹 2개씩 있음. W. H. Bosley Co. -Percy 전화: 486-5777

밀크 & 버라이어티 스토아 매매
좋은 위치. Yonge & Steeles
전화 : 222-3299 Frank

가게나 빌딩을 파실려구요?
저희 매매난을 이용해 보세요.
만족한 결과를 얻으실 것입니다.
광고국 : 533-2361

"가 구"
직접 공장에서 만들어 파는 까닭에 여러모로 고객에게 도움을 드립니다.
1)3 Pcs. Wall Unit. $199
2)7개의 설합달린 책상 $65
3)거울달린 화장대 $79
4)Bed room set(9 Pcs) with mattress $399
5)5 pcs. Kitchen set(식탁 + 4개의 의자) $89
6)쇼파 4pcs. set $399 etc. REMA FURNITURE
937 Queen St. W. 전화 : 364-0984

자녀들의 필수교과서
"WORLD BOOK' 백과사전
총 22권 • Special 가격으로 판매.
문의처 : 533-2364 김
767-1702 (오후 6시이후)

개인지도

피아노 레슨
Royal Conservatory 시험준비. All Level.
전화 : 669-5517 Mrs. 리 (Steeles & Bathurst))

치과기공 개인지도(Crown & Bridge Ceramic)
짧은기간내 적은 경비로 많은 소득을 얻는 기술.
(낮)636-1435. (밤)635-7116 박창우

구 혼

결혼상담, 전자침(한국기원내)
653A BLOOR ST. W. TORONTO.(18세부터 60세 사이)
전화 : 533-0168 매일1시-10시 Mr. 최·김

댄 스

부루스, 지루박, 도롯도, 탱고, 월츠, 폴카, 디스코, 차차···. (출장지도및 주말지도도 함.)
◉개인·소구룹·단체. 문의: 742-4208 김유수

-배워도 자신이 없는 분. -특별개인지도함.
-홀 준비되어 있음(출장지도는 밤 11시이후)
전화 : 271-0741 Mr. 명

아파트렌트

간이모텔
단기·장기 불문, 여행자에게도 크게 편리함. 693 Bloor St. W. Clinton House(Christie 지하철정거장옆 아리랑식당 앞) 전화 : 535-9541 Mr. 김

위치좋은 장소 세놓습니다.
구두방이나 피자 가게하기에 적합.
1370 Queen St. E. (관심있는 분만 내방바람)

3 Bed Room 렌트
456 Gerrard St. E. TOR.
전화: 921-4283 Mr. or Mrs. 윤

간 판

각종 고급간판 제작 및 수리 (CITYLITE SIGNS CO.)
777 WARDEN AVE.
전화 : 751-9236, 757-2106 홍 진 표

J Studio Signs (각종 간판, Silk Screen, Graphic)
127 Manville Rd. at Warden & Eglinton
전화 : (B)755-9087, (R)755-5304 이종소

꽃 집

다우스 꽃집 (DAWES FLORIST)
• 각종 어렌지먼트 & 각종 플랜트 • 각처 주문배달함.
464 DAWES RD.(VICTORIA PK. & ST. CLAIR)
TORONTO, ONT. M4B 2E9
전화 : 751-5851(B) 757-6711(R) 이 동환

한인경영 최대꽃집 Yonge Flower Shop
◉각종 플랜트, 어렌지멘트
◉화환 전문(일류 꽃전문가 고용)
◉토론토 전 지역 배달
589 Yonge St.(영×웰스리)
전화: 960-6265 Mr. 김

제인·팍 꽃집(Jane Park Plaza내)
◉각종 어레인지먼트, Plant, Gift.
◉주문배달함(토론토 전역 및 세계각국)
◉화환 특별할인 봉사
전화:(B)769-0609, (R)242-5194(여정용)
875 Jane St. Toronto, M6N 4C4

꽃집 욕-다운 (York Downs Florist)◉각종 어렌지와 Plant. 기타일체. 특히 분재(Bonsai)취급및 문의 환영. 배달함-이한균
◉3901 Bathurst St. Downsview 전화: (B)635-9794 (R)635-1288

Bloor & Kennedy 꽃집
결혼, 개업용 화환및 Plant
2194 Bloor St. W. 전화 : 766-0175

Lotus Florist And Gifts(메트로 전역. 캐나다및 미국 주문당일 배달. 영국·유럽은 3일전. 한국·기타지역: 1주일전.)
792 Bathurst St.(at Bloor) 전화: 533-3884·533-0705 Mrs. 김

정순꽃집 (Marklandwood Plaza 안)
4335 Bloor St. W., Etobicoke
전화 : (B)622-8516, (R)279-3719 허소피아

도서판매

자녀교육을 위한 성공의 열쇠!!
ENCYCLOPAEDIA BRITANNICA (전30권) 부리테니카
연락처 (416) 469-1350 (H), 463-7423(B) 이송원

메리야스

온가족이 애용하는 고급내의 쌍방울메리야스
602 BLOOR ST. W.
전화 : 532-5394(B), 742-0737(R)

미술연구소

삼우스튜디오 ◉화/오후5시-6시30분 아동미술교실, 7시-9시 성인미술교실 ◉수/오후7시-9시 인체뎃상(성인)
58 Wade Ave. 전화 : 537-7630, 961-9780

미 용

킴스미용실(코리아하우스 뒤)
◉일·월요일 휴무.
전화: 532-7094(B) 438-0628(R) Mrs. Oh

스타미용실(Mrs.김)◉남·녀커트 파마전문. •2437 Finch Ave. W. 전화 : 741-4410. 화~토: 9am~8pm. ◉매주 월요일만 동부영업
•1353 Danforth Rd. 전화 : 261-1533. 월 : 10am~7pm.

소니아미용실 신부화장, 남녀커트, 파마전문
2085 Lawrence Ave. E. Jovan Plaza unit 3 (우체국옆)
전화 : (B)759-8854. (R)755-2759 미세스 허

로마노미용실 김 조 자
330 Dixon Rd. W. (Islington 과 Kip ling 사이)
전화 : 248-2957(B) 247-6875(R)

마야미용실 632 Bloor St. W.
한국관앞 서울여행사 2층
전화 : 588-1480(B), 924-0221(R)

Annie's 미용실 812 Queen St. E.
전화 : 463-9071 Mrs. 리 (퀸×브로드·뷰)

레이몬드미용실(수잔:한국인)-◉남·녀 컷, 파마전문
월-금: 오전9시-오후8시, 토: 오전9시-오후5시
2491 Lakeshore Blvd.(레이크셔×토알욕) 전화: 255-4745

빵 집

Honey Home Bake Shop - 결혼·회갑·생일등 각종 케익과 샌드위치 Tray·샐라드 주문배달.
전화 : 961-9780 Mrs. 장 276 Dundas St. E.

번역및통역

번역통역(통역은 월요일만 합니다.)
CHARLES YU(유좌석) 10 SUNRISE AVE UNIT 203.
전화 : 759-9505(5시 이후) M4A 2R1

변 호 사

RALPH M. LEVINE B.A., LL.B.,(Barrister & Solicitor)
627 Bloor St. W. #302(외환은행 블루어지점 3층)
전화 : 533-8539 ★통역 항상 가능함.

보 석

Young Sook's 보석상
★각종 보석 취급. 최저가격. 중고교환가능
215 Yonge St. (B)368-7961 (R)690-5217 민영숙

보 험

Pro Insurance Prokerages Inc.
P.O. Box 126 Etobicoke. Ont. M9C 4V2

김 종 조 종합보험
전화 : 535-7200

임페리얄 LIFE (김홍량)
전화 : 961-3774

SUN LIFE (백용빈)
전화 : 497-3800

조규혁 종합보험
전화 : 233-6236

SUN LIFE (윤호영)
전화 : 922-3111

SUN LIFE (김신명)
전화 : 922-3111(B) 791-8196(R)

SOVEREIGN LIFE (강경범)
전화 : 233-6236(B) 279-7774(R)

부 동 산

복 덕 방 ROYAL TRUST CO.(로얄 트러스트)
곽 석 용 전화 : (B) 752-3111. (R)298-0398

D.F.McALLISTER R.E.LTD. 김 시 섭
투자전문(IC & I)
전화: (B)497-0600

이 훈 모 부 동 산
전화 : 225-1204

황용현부동산(주택매매·사업체 일체) (B)449-8644~6 ((R)286-1548 ★이헌영 (R)686-0207 ★ 유웅복 (R)447-9395 ★임윤식 (R) 636-7950 ★강정숙 (R)244-8918 ★임분옥 533-9061

CANADA PERMANENT TRUST CO.
황순일 전화 : 481-3443(B) 745-5485(R)

SINCERE REALTY INC. (채준성 : David Chae)
주택 사업체등 모든 부동산 취급.
전화 : (R)633-7892. (B)497-8900

A.E. LEPAGE (우 덕 이)
전화 : 741-9170

이 대 환 부 동 산
전화 : 535-1251

CENTURY 21 복덕방
조준상(John Cho)
전화: 743-7722(B), 742-0260(R)

SKYLINE REAL ESTATE LTD.
김충조 651A BLOOR ST. W. TORONTO.
전화 : 535-0028

사무용구및 계산기

S B S 캐쉬 레지스터 퀸스웨이×이슬링톤
각종 전자계산기 취급 (2년간 보증)
전화 : 252-7377(B) 762-4536(R) Mr. 안수일

사 진

새 한 칼 라 현 상 소(R)654-5691 전화 : 535-7772
결혼·돌사진·각종 증명사진·회갑·출장촬영
현상 인화 확대, 비데오 촬영. 630 BLOOR ST. W. TOR.

무 지 개 칼 라-촬 영 전 문
COMMERCIAL·ART PHOTOS·WEDDINGS·VIDEO촬영
36 Neapolitan Dr. 전화 : 438-4435 오후9시30분까지

생 선

Big Fish Market "일·월요일 휴업"
▲얼리지 않은 각종생선. ▲싱싱한 횟감 주문받음
765 The Queensway & Royal York. 전화 : 259-1585

Forest Glen Sea Food.
3413 Fieldgate Dr. Missi.
(Bloor & Two Block East of Dixie) 624-3092 임호빈

CANADIAN FISH MARKET
수십종류의 싱싱한 생선및 횟감.
658 Bloor St. W. 전화 : 535-2431 박용곤

선물센타

거북이 선물쎈타
617 Bloor St. W.
전화 : 535-2143(B)

빅·세븐 선물쎈타
678 Bloor St. W.
전화 : 533-7966

T. V.

한국비데오센타 ◉각종비데오테프 대여전문
◉품질보장, 신용본위, ◉비데오기계, T.V.판매
전화 : 532-0210 678 Bloor St. W. 손병헌

SONY Video, T.V., Stereo
Bayview Electronics, Bayview Village Centre
(Bayview & Sheppard) 전화 : 224-1622 김항섭

아카데미 TV & STEREO CO.
SANSUI, BRAUN, ZENITH, TELEFUNKEN 등
• 특별대매출. ◉ 월부판매 알선
★ 동부 255 MORNINGSIDE AV. 282-2820
★ 서부 Finch West Mall(Finch & Weston) 745-5555

STEREO KING 전화 : 766-4770
◉ 고급 라디오. 전축 전문센타
◉ 전축 스테레오 수리전문
◉ 비데오 취급
2989 DUNDAS ST. W. (킬 × 먼다스)

NIPPON VIDEO센타 ◉각종 일본테잎전문(4,000개이상)
◉비데오머신 판매. 1993 Danforth Ave.(댄퀴스×우드바인)
Tel: 698-0633 Mr. 하마구찌 "일요일 Open"

크린톤에서 만납시다 CLINTON HOUSE
○각종 모임을 위한 대·소 법실 있음.
○아늑하고 조용 ---- 마이크시설 있음.
693 BLOOR ST.W.
535·9541 MR. 김